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美 FTA 대응” 통상인력 50명 늘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둔 정부가 통상 인력을 대폭 늘린다. 통상교섭본부 내 ‘한·미 FTA 대책단’을 신설하고, 통상 인력을 50명 증원하는 등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여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통상 인력 조직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동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한·미 FTA 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 디지털경제통상과 등 3개의 과를 새로 만들어 50명 가량 증원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부처 파견 인력과 전문임기제 등 28명이 포함된다.

이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집중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외교부 시절에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다른 부처 인력 20여 명을 파견받고, 변호사와 민간기업 출신을 공개로 채용하는 등 통상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

특히,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 2차 협상의 범위를 상품 분야로까지 넓힌다는 계획에 따라 동북아통상과도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의 정원은 현재 279명이다. 이번에 50명 늘어나면 정원이 329명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파견을 위한 협의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이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전입한 77명의 통상 인력 중 26명(33.8%)이 다시 외교부로 복귀하거나 타 부처로 전출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한·미 FTA 관련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직제 개정 이후 관계부처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중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1일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국회 보고 이후에는 한국 측 준비가 마무리돼 공식 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박엘리 기자 ellee@

‘예산 담판’ 미소의 의미는...



여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비공개 조찬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종근 기자 foto@

효성 총수 겨는 공정위...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 후 처음으로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효성그룹 총수 일가와 법인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효성그룹 측에 전달했고 의견서(소명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공정경쟁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제재를 담은 심사보고서의 전원회의의 상정을 확정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심사보고서에 는 조석래·조현준 부자(父子)와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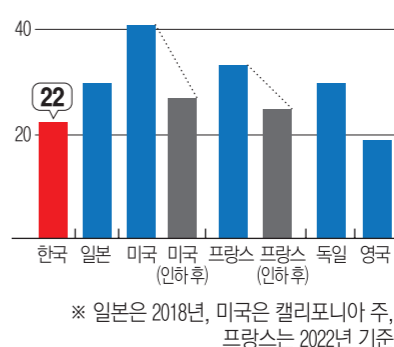
자,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2개 법인 을 고발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 졌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 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 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 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 의 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원 9명은 이르면 내달 전원 회의에서 기업집단국 조사 결과와 효 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 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선진국은 ‘減稅 도미노’ 한국 홀로 ‘增稅 주판알’

美, 법인세 35%→20% 대폭 감세
일본 실효세율 20%까지 인하 방침
佛·英도 단계적 감세 가닥 잡았는데
韓만 ‘인상’ 주력... 기업 경쟁력 약화

주요국 법인세율 현황(단위: %)



미국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계개편안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자 자극을 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계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계개편안과 조정이 남아 있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인세 최고세율 20%’ 안은 같다. 이로써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사실상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2.7%보다 낮아진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과 설

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원래는 실효법인세율을 25%까지만 낮출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프랑스 등이 감세에 나선 것을 의식해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에 일본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평균 29.74%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0%포인트까지 세율을 낮춰 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인세 감세 수혜를 보는 기업이 몇 만 개는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12월 2차 내각을 발족하고 나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2.11%에서 2016년부터 29.97%로 인하키로 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떨어트린 것은 일본 역사상 최초였다.

프랑스는 현재 33.33%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엔 25%까지 내릴 방침이다. 영국도 지난 4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19%로 낮췄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11%포인트나 인하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법인세율 인하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를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고, 집권 여당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대로 라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외국 기업 유치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자본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아마존에 뺏길라” 美 제약업계 지각변동

CVS, 애플 690억달러에 인수
몸집 불리며 ‘유통공룡’ 진출 견제

미국 제약업계에 아마존(發)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메이저 약국 체인과 대형 건강보험업체가 한 지붕 아래에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약국 체인 CVS가 건강보험업체 애플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 주주들은 주당 207달러를 받게 된다. 주당 145달러는 현금으로, 62달러는 1주당 0.8378주의 비율로 CVS 신주를 받게 된다.

인수가는 10월 26일 애플 주가에 약 29%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CVS는 약 1만 개의

자사 약국 체인에서 현지 사정에 적합한 건강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수 규모는 6월 아마존의 137억 달러 홀푸드마켓 인수를 넘어 올해 최대 인수·합병(M&A)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사가 이런 ‘빅딜(Big Deal)’에 나선 가장 큰 이유로 아마존을 꼽았다. 아마존은 높은 고객충성도를 무기로 서점과 식품 유통, 영화 제작 등 진출하는 분야마다 기존 시장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은 수년간 제약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다. 아마존은 미국 12개 주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월에는 집 주인이 없을 때에도 택배 배달원이 직접 문을 열고 집 안에 물건을 들여놓을 수 있는 ‘아마존키(Amazon Key)’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약품을 택배로 받을 때마다 문을 직접 열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CVS와 애플은 아마존의 제약시장 진출에 앞서 몸집을 불리며 사업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CVS가 아마존 진출에 앞서 새 헬스케어-소매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3대륙 동반성장에 투자심리 낙관... “證市, 버블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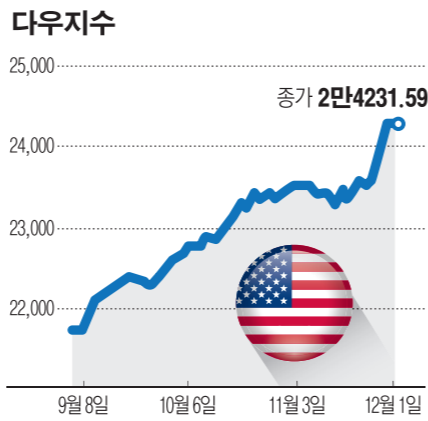
(美·유럽·中)

글로벌 증시 랠리는 '이성적 과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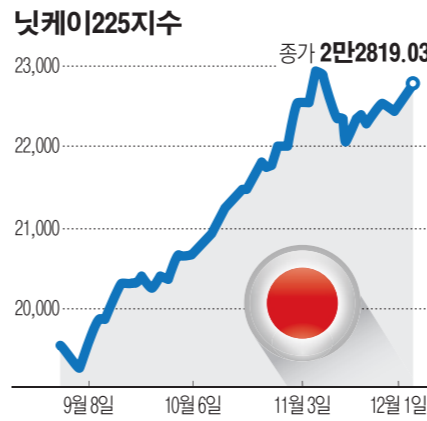
다우 2만4000선 첫 돌파...닛케이255지수 21년 만에 최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美·유럽·中 동시 경제성장 중
통화정책 불안감 줄고, 미국 외 시장 투자환경 여건 긍정적

연일 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 더 이상 거품 논란은 의미가 없게 됐다. 영국 타임스 경제평론가이자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현재 고공행진하는 증시는 버블이 아닌 '이성적 과열'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1월 30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2만4000선을 돌파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나 1000단위로 뛰었다. 같은 날 S&P500지수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본 닛케이225지수 역시 21년 만에 최고

치를 찍었다. 글로벌 증시가 이처럼 끝을 모르고 최고치를 다시 쓰는 현상에 대해 칼레츠키는 '이성적 과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서 그 근거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 유럽, 중국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3.3%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연합(EU) 28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분기 EU와 유로존은 GDP 성장률이 각각 직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EU와 유로존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6.7%로 상향 조정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후 몇 해 동안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 정책이 더 큰 재정 불안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적완화 정책은 인위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이를 중단할 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한마디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2015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이른바 '월드 터키 효과'(약·담배 등을 갑작스럽게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는 없었다.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시사하고 나서 나타났던 긴축발작 현상도 재현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통화정책을 덜 예민하게 느낀다는 방증이다.
세 번째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일본이 연준의 영향을 받아 양적 완화에 나선 시기는 2013년이다. 유럽은 그보다 더 늦은 2015년 3월에 양적 완화 정책을 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통화 정책 시기를 일치시키지 않은 유럽과 일본 덕에 테이퍼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는 전망이다.
테이퍼링 속도 차이에서 비롯한 투자 여건이 네 번째 이유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유럽과 일본은 적어도 수년간은 현재 양적 완화 정책에서 크게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유럽, 일본, 여타 신흥경제국들의 투자환경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여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에도 구조적인 불안은 남아 있다. 기술 발전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지, 불평등이 심화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지, 그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점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앞서 단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낙관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오늘날 시장의 과열은 비(非)이성이 아닌 이성의 결과라고 칼레츠키는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aaaa3469@

정부, 불법 가상화폐 거래소 '退出' 검토

유사수신 행위 법률 위반 적발시
영업정지·임시 거래중지 조치
금융용 내년 규제법 발의키로

-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방안**
- 유사수신 범주에 가상통화 거래 행위 포함 추진
 - 금감원·공정위·검경 가상통화 범죄 합동단속반 운영
 -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ICO 금지
 -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용공여 금지
 - 거래소 인가제 도입 불가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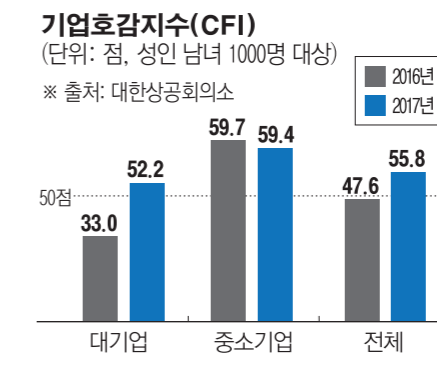
정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 거래소 중 현행법을 위반한 곳의 영업정지 및 임시 거래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고려되는 거래소는 다단계 구조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여신을 제공한 중소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순부터 검찰·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복수 거래소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하위 구매자에게 배당을 주는 다단계 구조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기소되며 해당 거래소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이들의 재산상 손해가 늘면 공정위가 영업정지 및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형성 및 사용에 거래소의 목인이나 방조가 있었다면 기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합동 단속반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도 조사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가 늘수록 이러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에는 정부 입법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해당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금별도 유치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예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 사실상 거래소의 설립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내년 상반기 발의할 계획"이라며 "가상화폐에 유사수신이 적용되면 예외 허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소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크고 작은 20~30여 개의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포인트는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SCI평가정보는 지난달 28일 100% 출자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에스코인을 이달 6일 연다고 밝혔다.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11월 27일 1090원에서 12월 1일 3100원으로 4일 연속 상승가를 기록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경기 살아나자... '反대기업' 정서 줄었다

대한상의 '기업호감지수' 조사
수출·경제적 성과에 인식 개선
대기업 평가 33→52.2점 상승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작년부터 높아졌다. 대내외 악재에도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내자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된 것이다. 다만 사회적 기여나 규범·윤리 준수 측면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47.6)보다 8.2점 오른 55.8점을 기록했다. 기업호감지수는 2013년 하반기 51.1점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 기준치인 50점을 밑돌다가 4년 만에 50점을 넘겼다.
기업호감지수가 50점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그렇지 않은 답보다 더 많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라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완화됐다. 대기업 호감도는 지난해 33.0점에 그쳤지만, 올해 52.2

기업에 대한 부문별 평가
(단위: %)

평가항목	2017년	2016년
경제적 성과	52.0	36.4
사회적 기여	24.5	41.3
규범·윤리 준수	21.8	40.5

으로 오르며 긍정적인 평가로 전환됐다. 기업호감도가 개선된 이유는 경제적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연세대 경제학과 조성훈 교수는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청년 실업률 악화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상승이 전망되면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에서 좋은 점수(62.8점)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부문에선 각각 46.5점, 44.4점에 그쳤다. 이는 국민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충분하지 않고, 법규준수와 윤리경영 노력이 다소 부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활발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36.0%)는 응답이 '그렇다'(26.2%)보다 많았다.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실제 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38.5%)를 많이 꼽았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기업호감도가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좀 더 노력하고 국민도 기업이 잘하는 활동은 응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다시, 봄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아동 1000명 중 275명이 학대를 경험하지만 발견되는 아이는 단 1명...
274명의 아이들은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국민감시단'을 검색하세요.

국민감시단

검색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는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국민 아동학대예방캠페인입니다.

주최 : 굿네이버스

후원 :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車-FCA 同盟 추진... 정의선 부회장 '수소차' 強드라이브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 전지차를 앞세워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대상은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FCA). 이미 일본 도요타는 BMW와 기술협력을 체결했고, 혼다는 GM과 동맹을 맺은 상태다.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성장전략의 변화도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르키오네 피아트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는 이탈리아 '알파 로메오 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와 수소연료 전지차와 변속기(감속기) 개발 등에서 기술 제휴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의 합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FCA는 2014년 미국 시장 확대를 노린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합병하며 설립됐다. 피아트는 알파 로메오와 란치아, 고급차 브랜드 마세라티를 쥐고 있다. 미국 빅3 가운데 하나였던 크라이슬러는 지프와 닌지 등을 거느리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FCA는 글로벌 7위 수준이다.

FCA와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지차 협력관계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현대차는 2세대 투싼을 베이스로 개발한 수소연료 전지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관련 기술도 선두그룹에 속한다. 일본 메이커가 속속 수소연료 전지차 기술을 앞세워 동맹을 확대하는 가운데 현대차 역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CEO "기술 제휴"

세타엔진 개발컨소시엄 'GEMA' 이후 13년만에 글로벌업체와 공동개발 나서

대량생산 체계 구축 등 시너지 기대감

FCA 산하 '브랜드 지분' 요구 가능성 대대적 M&A·성장 전략 변화 분석도

전지차 다음 세대로 여겨지는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 규모는 현재로는 작다.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게 아닌 수소를 주입해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마음 먹으면 세울 수 있는 전지차 충전시설과 달리, 수소충전소는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결국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현대차 홀로 독자기술만을 앞세워 시장에 뛰어들면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미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깊게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 FCA의 파트너십 제안은 메리트가 충분한 러브콜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가 일단 칼자루(기술력)를 왼만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십과 함께 현대차가 FCA 산하 특정 브랜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현대차그룹 내 기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프랑스 푸조를 비롯한 유럽 메이커의 러브콜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현대차가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배경에 M&A 전략의 변화를 예상하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차는 1998년 기아차 인수 이후 대부분의 M&A를 건설과 증권, 제약, 전자 등 비(非)자동차 산업에 투자해 왔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독일 폴크스바겐과 일본 도요타 등이 꾸준히 자동차 분야(경차와 트럭, 모터사이클)에 집중해 온 것 과 다른 양상이었다.

반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공유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몰려오면서 현대차그룹 내부에도 새로운 기류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중심에 그동안 끊임없이 성장 전략의 변화를 추구해온 정의선 부회장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8년 2월 2세대 연료전지차를 출시할 예정인 현대차의 연간 생산목표가 약 3000대에 불과해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외부업체와 협력이 현대차 기술력에 대한 인정과 대량생산의 조기 구축 가능성으로 이어져 긍정적이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해외IB 절반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인상"

내년 말 금리수준 최대 2.0% 전망... 韓銀 총재 교체·지방선거 변수 작용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의 기준금리가 많게는 두 차례 인상되면서 연 2%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투자은행은 금리인상 예상 횟수를 늘려 잡으며 내년 연말 예상금리 수준을 높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 중 4곳은 내년 상반기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BoA메릴린치 등 3곳은 내년 상·하반기 2차례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2%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나머지 5곳은 1회 인상을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 0.25%포인트 1회 추가 인상 전망을 냈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한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한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내년 말 예상금리 수준도 연 1.25%에서 연 1.75%로 올랐다.

골드만삭스도 한은이 2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에 1회 더 단행할 것으로 봤다. 연 2회 인상 전망은 유지하면서 인상 시점을 구체화했다. 바클레이즈도 내년 중 2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으로 수정했다. BoA메릴린치는 한은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인상할 것으로 봤다. 노무라도 내년 4분기 1회 더 올린다고 전망했었으나 하반기로 수정했다. 다만, JP모건과 씨티는 내년 3분기 1회, HSBC는 내년 4분기 1회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내년 1분기에는 1월 18일과 2월 27일에 두

주요 IB 한은 내년 금리인상 전망

기관명	2018년 인상시기	연말 금리 수준
골드만삭스	2분기 하반기	2.00%
노무라	하반기	1.75%
JP모건	3분기	1.75%
HSBC	4분기	1.75%
씨티	3분기	1.75%
BoA메릴린치	상반기 하반기	2.00%
모건스탠리	2분기	1.75%
바클레이즈	상반기 하반기	2.00%

차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이주열 총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재가 취임 직후인 4월 12일에 금통위를 주재한다. 그 다음 금통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이 총재 퇴임 한 달 전이나 신임 총재 취임 직후에 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때문에 하반기에 접어든 뒤인 7월 12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려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인상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리역전이 바로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안철우 기자 acw@

文 "일자리 재정" 외쳐도 지자체는 시큰둥?

지방재정 집행률 75% 불과... "국정농단 사태 영향 적절한 사업 시기 놓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얼어붙은 경기를 녹여내려 정부가 군불을 때도 지역경제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크게 벌어진 예산 집행 속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예산은 10월까지 약 85% 집행됐다. 전체 281조7000억 원 중 239조4000억 원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11월엔 90%대가 되고, 일부 이월과 불용을 제외하면 연말까지 약 95%의 집행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자체의 예산 집행 속도는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은 전달 20일 누계기준 252조2969억 원으로

75.28%에 그쳤다. 11월 말이 되도록 중앙재정의 9월 집행률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저조한 예산 집행은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들은 추경으로 전체 예산의 모수(母數)가 커져,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까지 올해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면서, 적절한 사업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교체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내용이 바뀌는 사례도 나온다.

A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데, 담당부처와의 협의와 계획 보완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하이원 위더월드
2018년 7월 개장

금빛질주 하이원

대한민국 최상의 설장에서 만나는 눈부신 꿈의 무대!
하이원에서 금빛질주가 시작됩니다!

Magic Festival

최현우 스페셜 매직쇼
2017.12.16(토) 15:00 / 19:00 컨벤션홀

매직 버스킹
2017.12.16(토), 24(일), 25(월) 컨벤션호텔

매직 아카데미
2017.12.16(토) 14:00 / 18:00 카사사네마

매직 퍼레이드
2017.12.9(토), 24(일), 30(토) / 18:00
2017.12.16(토) / 17:00 카사사네마

연말·연시 콘서트

하이원 크리스마스 콘서트
2017.12.24(일) 19:00 컨벤션홀 (조성모, 나윤권, 유성은, 율랄라세션, 헤시테그)

2017.12.25(월) 14:00 컨벤션홀 (최정원, 더뮤즈, KCM, 나비)

신년음악회
2018.1.6(토) 19:00 컨벤션홀 (이은미, ACP오케스트라, 클래식 합연)

하이원 드림콘서트
2018.1.20(토) 19:00 컨벤션홀 (볼빨간사춘기, 구구단, 알리, 포맨 외)

다이너믹 불꽃쇼

다이너믹 불꽃쇼
2017.12.2(토)~2018.2.24(토)
매주 토요일 20:50 강원랜드 전다광장 (추기일: 12.24, 25, 31 / 1.1, 2.9, 15, 16)

〈스페셜 불꽃쇼〉"Adieu 2017, Welcome 2018"
2017.12.31(일) 23:20 강원랜드 전다광장
홍경민 특별공연, 키오티다온 행사 등

하이원스키와 함께하는 영화 '죽만지 새로운 세계' 예매권 이벤트
참여방법: 하이원홈페이지(www.high1.com), SNS 링크

* 경품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하이원 홈페이지(www.high1.com)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분담금 관리위’ 금융위에 설치法案 통과 가능성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기재위 계류 중인 ‘감독분담금→부담금’ 전환 법안은 힘 없어
정무위, 原사업자의 보복행위 ‘3배 배상제’ 하도급법안도 처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통제할 관리위원회(관리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통과 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는 수반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

게 접혀진다. 법안은 최근 분담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분담금을 포함한 금감원 예산 심사를 강화하고 금감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금융위가 승인한 금감원 예·결산서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 감독분담금 관리위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분담금 관리위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감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법안은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논란 속에 당파가 불거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밥그릇 다툼’ 논란도 일단락 될 것이라 관측이다. 정무위는 대규모유동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매장업자인이 질병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동업자가 부담하게 매장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법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이에겐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부당한 증거수

집이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등이 드러나면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교부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로 넘겼다. 김미영 기자 bomnal@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지원
우량등급 기업 중심 지양해야”
국회예정처, ‘금융공공기관 정책’ 보고서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의 우량신용등급 기업 위주의 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은행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대출 방식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은행형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6조2568억 원의 온렌딩 대출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0년 3조2011억 원에서 3조557억 원(95.5%) 증가한 수치다.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은 각 연도별 총 대출금액의 11.5~14.7%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온렌딩 대출액 중 업력 5년 미만의 신생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0년 9%에서 올해 6월 4.5% 감소한 반면, 업력 이상의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0년 31.1%에서 올해 6월 4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온렌딩 대출은 신생 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렌딩 대출 총액 중 신용등급 7등급 이상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4년 28.9%에서 올해 6월 36.4%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예정처는 “이 같은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는 2009년 실행 이후 제도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해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말 이후 이 제도가 전체 온렌딩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렌딩 대출 한도의 50% 이내, 최고 60%까지 신용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나 2012년 말 이후 실행된 실용위험분담부 온렌딩 대출 비중은 2010년도 5.54%에서 올해 6월 0.02%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산업은행은 온렌딩 대출의 본래 목적에 맞게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나, 정책 목적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개금융기관인 은행이 지원 대상을 엄선해 선별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니 기자 honey@

부산港, ‘세계 5위 항만’ 탈환 올해도 어려울 듯 9월말 1531.9만 TEU로 홍콩에 밀려 6위..한진사태 여파 해소 “내년 기대”

부산항이 올해 3년 만에 세계 5위 항만의 지위를 재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하이항이 2989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단독 1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항이 2477만 4000TEU로 2위였다. 이어 중국 선전항이 1895만 3000TEU, 닝보·저우산항이 1874만8000TEU로 3~4위를 나타냈다. 부산항은 1531만9000TEU로 홍콩항 1563만 5000TEU에 30만TEU 정도 뒤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산항이 올해 목표인 2000만 TEU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3년 만에 세계 5위 항만 탈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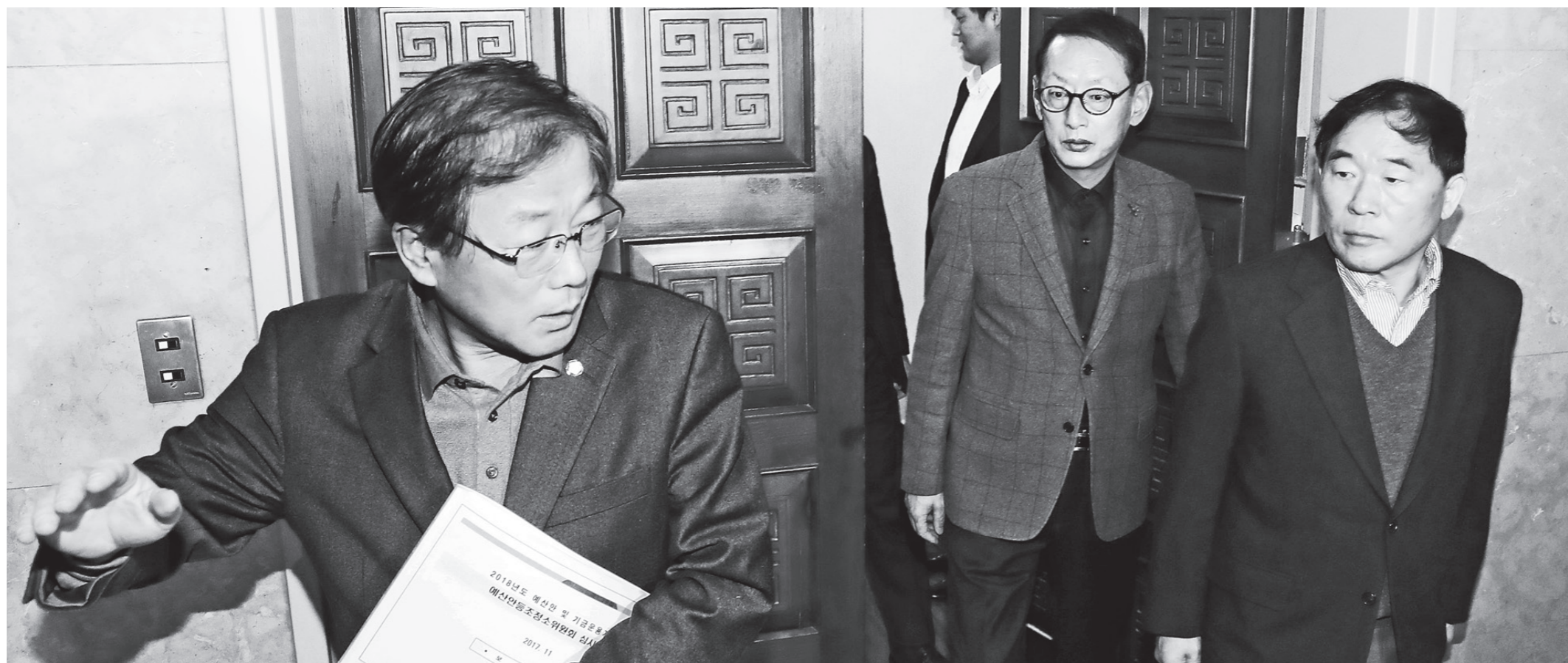
류가 크다. 올해 목표인 2000만TEU는 수치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다. 부산항은 10월까지 1701만4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했다.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한 달에 168만 3000TEU의 물동량을 기록해 12월까지 2030만 TEU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항은 지난해 2년 만에 5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11월까지 홍콩항을 제치고 5위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8월부터 시작된 한진해운 사태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12월에 홍콩항에 추격당해 6위에 그쳤다. 반면 홍콩항은 2년 연속 호재가 이어졌다.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가 동남아시아의 허브항으로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의 탄중 팔라파스항 일

대에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물량을 홍콩항으로 대거 옮겼다. 올해도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으로 가던 선박이 항만 사정으로 홍콩으로 물렸다. 2004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였던 홍콩항은 이듬해 싱가포르항에 밀려 2위가 됐고 이후 중국 상하이항, 선전항, 닝보·저우산항, 부산항에도 밀리는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항만들이 시설을 계속 확장한 반면, 시설 확충이 미비했고 비싼 하역료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2년 연속 홍콩항에 뒤졌지만 내년에는 홍콩항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반면 부산항은 한진해운 여파가 끝나 세계 5위 항만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한진해운 사태가 하반기



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올해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12월까지 가뭇아 알겠지만 홍콩항에 5위를 내주더라도 30만~50만TEU 차이 밖에 안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도훈 기자 sogood@

휴일에도 만난 예결위 소수위 간사 ‘여당과 야당의 거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수위를 마친 뒤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연합뉴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나온다 김현미 장관, 협의체 첫 회의 주재 세부추진계획 담아 내년 3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국토부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담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내년 3월에 내놓는다. 국토부는 4일 ‘국토교통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일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견인해 물리적인 인프라를 넘어 전 국토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 분야와 경제, 산업, 고용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일자리, 주거·부동산, 건설산업, 인프라, 운송물류, 항공산업 등 6개 본과회의에 총 3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올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소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 신산업 등의 성장 정체,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 건설업·운수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등을 국토교통 일자리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 동력 확대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 △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개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도훈 기자 sogood@

차등 지급에 시기도 미뤄지는 ‘아동수당’

與野, 소득 상위 10% 제외·10월 지급 합의... 文 공약 축소
참여연대 “차등적 지급은 시대착오적... 원안대로 시행해야”

내년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고소득층 자녀에게 아동수당 지급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할 것을 여당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연계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3당 원

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책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000여 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

이 크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대로 아동수당 정책 수정이 시행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대폭 축소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 정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나서야 한다. 고소득층에 아동수당을 미

지급하면 애초 1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약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셈이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역차별 문제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역전 현상을 맞고자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원안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다. 그중 20개국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촛불 민심 ‘改憲’ 불 밝혔지만... 與野는 아직도 ‘平行線’

〈개헌〉

정치권 ‘개헌 同床異夢’

2017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겨울 치러질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는 5월 봄별 아래 치러졌다. 국민은 정권 교체의 주된 사유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헌을 약속했다. 마치 1987년 민주화 혁명의 열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듯이, 촛불 시민혁명의 열기는 제10차 개헌 논의의 연료로 작용한 셈이다.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소위 원회를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자문회의를 거쳐 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사실 국회발 개헌 논의는 지난 18대·19대 국회부터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10차 개헌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론, 조분별 문구까지 대부분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민의(民意)가 임계점까지 끓어오르지 못하고 논의에 그쳤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모여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5년 단임제는 이번 개헌안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해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의 지위 중심으로 (한정하고), 그 지위가 과대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제도로 방지하는 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주요 요직의 대통령 임명권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 민주화’ 조항의 강화와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검토된다. 경제 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시장 개입 등을 명시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개헌특위는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예산법률주의 명시도 확실시된다. 지난달 28

개헌 주요 쟁점안

- 1 권력구조 개편**
 여당 입장 대통령제 · 4년 중임
 야당 입장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 2 예산법률주의**
 여당 입장 예산법률주의 명시해야
 야당 입장 논의 계속
- 3 연동형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
 여당 입장 찬성
 야당 입장 국민의당 · 찬성 한국당 · 반대

與 “4년 중임제” vs 野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 개편방식 놓고 ‘날선 신경전’

내년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자유한국당 반대 부딪쳐 실행 불투명

“정치권 당리당략에 논의 지지부진...”

국회 아닌 국민공론 맡겨야’ 목소리도

일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 자문위원은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상식”이라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변경안에 대해 여야 의견 차가 크다. 이 때문에 최종 개헌안 도출 논의와 관련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들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민주당 의원. 뉴스시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헌을 원내 116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면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헌을 해야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개헌 시기를 못 박을 게 아

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 공론화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삼켜 버려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실종됐다”며 “정치권이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협

상을 못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 공론에 맡기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 논의는 올해를 넘겨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여야 간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원을 국회가 정쟁으로 망가트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롭게 쓸 욕망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정용욱 기자 dragon@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4일 ‘정당·선거 분야’ 6일 ‘권력구조’ 국회합의 무산 땀 대통령 발의 가능...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의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요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6일엔 개헌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정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민주당에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듯한 양상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느 당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 전망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

울 것”이라면서 “알맹이인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헌법을 고칠 수도 없어 내년 6월 개헌 투표는 결국 힘들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한국당의 경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 자체에도 여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점부터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반대 입장을 공시화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역시 개헌을 위한 정치권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보 선출부터 선거운동, 선거까지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개헌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개헌 발의와 처리까지 걸리는 적잖은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하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헌안 발의안을 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든, 문 대통령이 나서든 6·13 지방선거에 맞추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김미영 기자 bomnal@

Sulwhasoo

雪花秀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윤에센스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나다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량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설화수 플렉스스토퍼 및 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링룸 등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물레그리스토퍼: 02-541-9270 *고객상담실: 09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

특수학교 22곳 신설... '교육장애' 없앤다

(2022년까지)

교육부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250학급 신·증설...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2022년까지 22곳 이상 신설된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확대하고 의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174개교, 1만325학급이다. 2022년에는 196개교(12.6%↑), 1만1575학급(12.1%↑)으로 늘어난다. 유치원 400학급, 초·중·고 850학급이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도 교육감이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 설립 시,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사·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확

충도 추진한다. 현재 공립 특수교사 배치율은 67.2%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특수교사 1173명을 확보해 배치율이 75.4%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도 장애특별성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한다. 2018~2022년 연수 이수 인원은 2만1000명이다.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내실화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통합학

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곳에서 2022년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 전담팀을 2022년까지 50개 운영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을 현재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 교육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해 '정다문화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

까지 139개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진로진단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윈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장애공감문화 조성 위해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 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사드갈등' 해소 이후 첫 中 단체 관광객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일부 허용 이후 첫 유커(游客·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3일 서울 경복궁에서 '해빙된 한국의 첫 단체 방문'을 뜻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3월 15일부로 내린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이후 '호 단체 비자 관광객'인 이들은 6일까지 서울, 경기의 주요 명소와 시내 면세점 등을 방문한다. 이종근 기자 foto@

역대 최대 '158만갑' 담배 密輸 조직 덩어리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몰래 국내로 들여와 수십 억 차익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 갑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거액을 챙긴 국내 최대 담배 밀수입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전년도 관세청에

서 적발한 밀수입 담배의 60%에 달한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9)씨와 운반책, 판매책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세창고 보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또 동남아와 중국에서 A씨 일당을 도운 혐의로 B씨와 C씨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6월 27일부터 3달 동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 갑(65억 원 상당)을 현지에서 값싸게 구매해 뒤 국내에 몰래 들여와 십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태국에서 국산 면세담배를 B씨가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면 C씨가 1박스에 담배를 270보루씩 포장해 인천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조직은 세관에 일반화물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담배가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둔 인형과 모기장으로 물건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통된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과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서 다시 3000~3200원에 판매됐다. 세관은 A씨 등이 보관하던 담배 25만 갑을 압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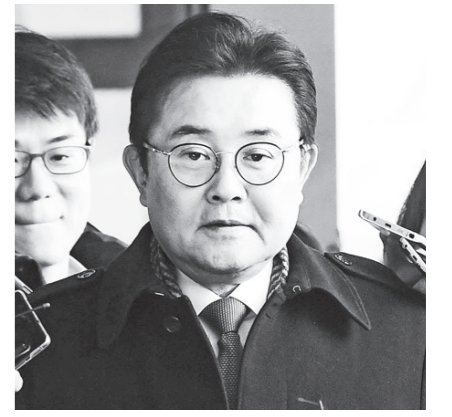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檢, 뇌물혐의 전병헌 오늘 재소환

GS홈압수수색·관련자 조사 통해 혐의 보강... 영장 재청구 가능성

(前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롯데·GS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2시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각각 후원금 3억3000만 원과 기부금 1억5000만 원을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e스포츠협회를 지난 전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검찰은 특히 GS홈쇼핑의 기부금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대가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 GS홈쇼핑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뒤 허태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이후 두 달 뒤 GS홈쇼핑은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

5000만 원을 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뒤를 바주는 대가로 GS홈쇼핑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허 대표 이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또 옛 국회 보좌진 김모 씨 등과 함께 협회 돈 5억여 원을 자금

세탁해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을 협회 직원으로 꾸며 매달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GS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평택 미군기지 건설 공사 주한미군 측에 뒷돈 건넨 SK건설 임원 구속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은주 담지 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자금세탁,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2008년 주한 미군기지 공사입찰 당시 SK건설이 주한 미군 관계자 N씨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SK건설이 하청업체

를 통해 비자금 조성해 주한미군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 수주에 관여한 SK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경청인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전직 국방부 중령 이모 씨 신병을 확보했고, 이달 1일 서울 인사동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전무를 체포해 다음 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은 2008년 12월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사령부가 발주한 232만㎡ 규모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경찰청 특수과는 2015년 이변 의혹 관련 SK건설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N씨가 해외로 도주하면 서 기소중지 상태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N씨는 9월 뇌물수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민경제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든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주택·도시 부문 좋은 일자리 모색 토론회

2017.12.6(수) 14:00 - 18:00
서울 KT스퀘어 드림홀



Program

본행사 (컨퍼런스)

▶ 기조강연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Session 1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정책 연계방향
이창원 한성대 교수
- 고령화시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방안
주성돈 경운대 교수
- 토론 및 청중질의

▶ Session 2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지원 및 협력방안

- 주택·도시부문 사회적 경제주체 협력방안
남철관 나눔과 미래 주거사업국장
- 소셜벤처 활성화방안
박상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 및 청중질의

퍼포먼스

▶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
'일자리 명중 활쏘기' 퍼포먼스

▶ 가수 이만 '대장금' 주제가 축하공연

주최



한국벤처창업학회

SAPA 서울행정학회



은행, 예·적금 金利 줄줄이 인상

신한·SC제일銀 오늘부터 반영
 他 은행도 이번주 초 인상 예정
 최고 0.4%p 올라 年 2%대 진입
 카뱅, 인상 폭·날짜 등 세부 검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하면서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4일부터 최고 0.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은행 정기예금이 연 2%대에 진입했다. 대출금리도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평균 0.1~0.3%포인트, SC제일은행은 평균 0.3~0.4%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의 대표 예금상품인 '신한플러스 월복리 정기예금'은 기존 최고 0.1%포인트 올라 최고 연 2.1%로 오른다. 신한 헬스플러스 적금도 0.1%포인트 올라 최고 연 2.1%로 오를 예정이다.

SC제일은행 '퍼스트정기예금'의 경우 0.4%포인트 올라 최고 연 1.14%로 오르고 일반 정기예금도 0.3%포인트

은행	금리 조정	인상 시기
우리	- 0.1~0.3%p 인상 - 위비수퍼주거예금 1.8 → 2.1%	12월 1일부터
국민	인상폭 미정	이번주 초
신한	0.1~0.3%p 인상	12월 4일부터
하나	0.1~0.3%p	이번주 초
농협	0.2~0.3%p	이번주 초
기업	인상폭 미정	이르면 이번주 중
SC제일	- 0.3~0.4%p 인상 - 퍼스트정기예금 1.10 → 1.14%	12월 4일부터
씨티	0.25%p 이상	이번주 초
케이뱅크	- 0.15~0.2%p 인상 -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2.2 → 2.4%	- 12월 1일~내년 1월 2일까지 이벤트 - 1000만원 한도 소신시 조기종료
카카오뱅크	인상폭 미정	이르면 이번주 중

가량 올랐다. 나머지 시중은행도 이번주 초쯤 예·적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주 초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예금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다. 최고 연 2.12%에서 판매되던 '왈츠회전예금'은 연 2.32%로 약 0.2%포인트 올리고, 'e-금리우대예금'도 연 1.85%에서 연 2%대로 조정할 전망이다.

국민은행도 한국은행 인상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씨티는

행은 한국은행 인상폭인 0.25%포인트 이상으로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가장 먼저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우리은행은 1일부터 11개 정기예금과 18개 적금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했다. 정기예금인 '위비수퍼주거예금'은 0.3%포인트 인상된 최고 연 2.1%로 금리가 조정됐다. '우리랜디지100여행적금'의 금리는 0.2%포인트 올라 최고 연 4.7%가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적금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케이뱅크는 다음달 2일까지 연 2.4%로 0.2%포인트 올린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을 1000억 원 한도로 한시 판매한다. '코드K 정기예금'은 연 2.25%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르면 이번주를 인상 시기로 잡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중 은행들의 인상 추이를 보고 인상폭이나 날짜 등 세부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체의 여·수신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은 금리 인상에 이어 1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예금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실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상승과는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자산운용사 5곳 중 2곳赤字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경쟁 심화
 3분기 순익 1703억 전년비 30%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신규 펀드가 급증하자, 운용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반이 취약한 신설 회사들의 실적 역시 저조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자산운용사 195개 사 중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82개 사로 지난 2분기보다 19개 사가 늘었다. 전체 운용업계에서 적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42.1%로 전분기보다 8.0% 확대됐다.

운용업계에서 적자회사가 증가한 데는 사모펀드의 부진이 배경이다. 9월 말 기준 현재 사모펀드 120개 사 중 절반이 넘는 66개 사가 적자를 기록, 적자회사 비율이 55.0%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신규 설정 펀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자 운용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3분기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는 10개인 반면, 공모펀

드는 0개로 집계됐다. 회사 별로는 신설 회사가 7개 사이고, 리츠AMC 경영 회사가 2개 사, 자산사에서 전환한 곳이 1개 사이다. 밀려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심사 건수도 상당하다. 작년 사모운용사 심사 건수는 183건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금융권 전체 인가·등록 심사 건수의 67%나 됐다.

수익성 측면에서 들여다봐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다. 3분기 자산운용사의 전체 순이익은 1703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8.0%, 전년 동기보다 29.7% 각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63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6.1% 증가했지만, 자본 이익 등 영업외수익 감소분을 고려하면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 들었다. 9월 말 실적은 작년 6월 말보다 1.7%포인트 하락한 12.9%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규 진입이 증가해 경쟁이 촉박된에 따라 적자회사 비율이 40%를 웃돌았다"면서 "수익 기반 취약회사의 수익 현황과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소송관리, 소비자 및 원만한 해결

손보사 訴訟 비율 확 줄었다

3분기까지 182건... 전년비 40% ↓

손보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고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16개 손보사의 분쟁 중 소 제기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전년 동기 220건보다 40여 건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182건 중 손보사의 소 제기 건수는 160건, 소비자의 소 제기는 22건이었다. 소 제기 건수는 금융회사와 신청인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합한 것이다. 손보사 업계의 소 제기 건수는 3분기 기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694건이었던 소 제기 건수는 2015년 588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220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 들었다.

이 같은 감소세에는 보험사들의 소송관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당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보험사들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특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렇지만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한다"고 전했다.

회사별 소 제기 현황을 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화손보다. 올해 56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80% 증가했다. MG손보는 12건, 롯데손보는 11건, 메리츠화재와 서울보증은 각각 2건씩 늘었다. 반대로 소송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삼성화재다. 지난해 47건에서 16건으로 34%가량 감소했다. 그 밖에 약사손보-2건, KB손보-16건, 흥국화재-8건, 더케이손보-7건 등 순으로 감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소 제기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들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특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렇지만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한다"고 전했다.

회사별 소 제기 현황을 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화손보다. 올해 56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80% 증가했다. MG손보는 12건, 롯데손보는 11건, 메리츠화재와 서울보증은 각각 2건씩 늘었다. 반대로 소송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삼성화재다. 지난해 47건에서 16건으로 34%가량 감소했다. 그 밖에 약사손보-2건, KB손보-16건, 흥국화재-8건, 더케이손보-7건 등 순으로 감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소 제기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쫄 직원 보험 팔아라”... 금감원, 銀行 무더기 제재

보험 판매 직원 최대 2명 불구
 방카 유도로 보험업법 위반
 계약자 자필 서명 관리 소홀도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판매) 취급 시 지정 판매인이 아닌 직원에게 보험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계약자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은 전 직원에게 보험 상품 판매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 점포)에서 보험

은행	제재내용	제재조치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판매 2인 외 전체 직원 보험판매 조장	경영유의 1건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보험 계약자 등 자필서명 관리 소홀 판매 2인 외 전체 직원 보험판매 조장 재산종합보험 등의 모집업무 합리성 제고	경영유의 3건
우리은행	보험 계약자 등 자필서명 관리 소홀	경영유의 1건

※출처 : 금융감독원

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은 최대 2명이다. 그 외에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들이 일반 직원들에게 방카 판매를 유도해 보험업법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전 직원이 공유하는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모든 창구에서 한목소리

로 방카 권유' '전 직원 의기투합해 매일 방카 권유 생활화' '우리 모두 합심해 고객에게 하루 10번 권유' 등의 글을 게재했다.

기업은행은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보험판매를 권유하는 지침을 담은 '지역본부 방카 활성화 전략' 등 문건을 각 지점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개인고객팀 창구에서 전 직원들 소

액으로 지속 권유' '전 직원 타깃고객 대상 하루 1명 이상 상품 권유' 등 조직적으로 전 직원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은행의 모 지점은 2014년 9월, 2015년 4월 방카슈랑스 판매촉진 행사인 '방카페스티벌'을 개최, 이 기간 중 1일 평균 18.4건의 보험을 판매했다. 이는 2012~2015년 3년간 해당 지점의 평균 판매 건수(1일 2.3건)보다 8배 많은 규모다.

부산은행도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전 직원이 동참하라-전 직원이 개인별 목표 달성' '방카 성공시 실시간 전 직원 공지해 격려' 등의 글을 게재했다. SC제일은행, 대구은행도 같은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한 부분을 지적받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선 계약 후 다음날 자필서명을 받거나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박규준 기자 abc84@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기정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13% / IT관리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정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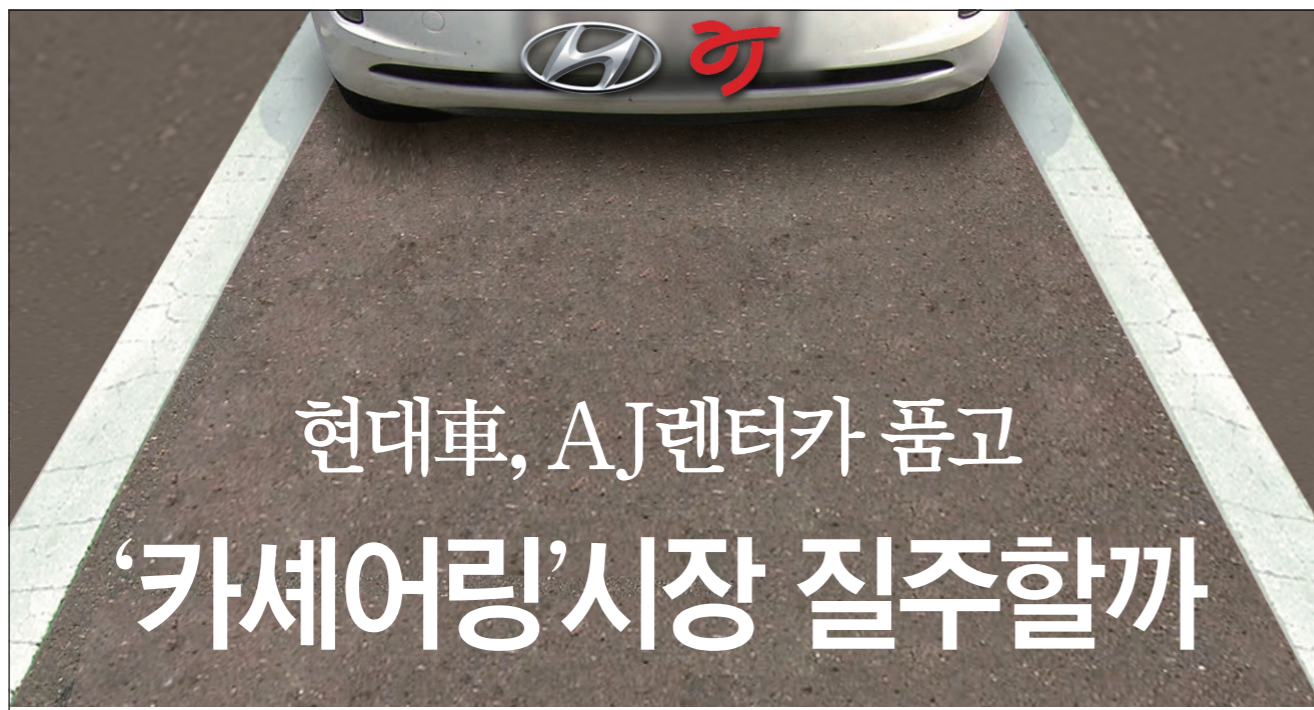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현대차, AJ렌터카 품고 '카셰어링'시장 질주할까

현대자동차가 AJ렌터카를 인수해 카셰어링 사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J렌터카의 최대주인 AJ네트웍스가 렌터카 부문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AJ네트웍스는 1일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조희공시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월 같은 내용의 조희공시에서 AJ렌터카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달리 매각설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달 초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국내 대형 렌터카 업체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제조업 기반 사업에서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만큼, 현대차도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국내 렌터카 인수설과 AJ렌터카 매각에 대한 조희공시가 맞물리면서 현대차의 AJ렌터카 인수설이 힘을 받고 있다.

현대차가 AJ렌터카를 인수하면 카셰어링 사업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MW와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이미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그간 카셰어링 사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현대차는 카풀형 카셰어링 업체인 렉시에 50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아차는 특정 주주단지 중심 카셰어링 서비스인 '위발'을 8월 출범했다.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빌려쓰는 방

BMW·GM 등 글로벌 완성차 이미 카셰어링 서비스 시작 국내는 쏘카·그린카 업계 주도 국내시장 규모 작년 1000억원 글로벌 2024년 65억 달러 전망

전기차 등 미래차 시험무대로 현대·기아차 투자 관심 보여



법 중 하나다. 차량을 모바일을 통해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무인거점에서 차를 빌린 뒤 대어 장소에서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일 단위로 대여하는 렌터카와 다르다. 최근에는 원하는 장소에서 배달받고 반납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대차가 카셰어링 사업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사업 자체의 전망과

활용 가치 때문이다. 시장조사사업체인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카셰어링 시장 규모는 2015년 11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35억 달러, 2024년에는 6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도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삼정KPMG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2011년 6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5000억 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카셰어링 사업은 커넥티드카·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시험해 볼 수 있어 활용 가치도 높다. 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선제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에 투입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는 카셰어링을 통해 소비자들 차량 내 어떤 기능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어 트렌드와 장단점 분석에 용이하다.

아울러 전기차 확산에도 카셰어링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거리에서 약점을 보인 전기차는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 이용객은 단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전기차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카셰어링 시장에서는 쏘카(SK 대주주)와 그린카(롯데렌탈 대주주)가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이나 미래차 개발을 위한 인수합병에 소극적이었던 현대차가 렌터카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이미 공유경제가 소비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손영권 삼성전략혁신센터 사장, 헬싱키 스타트업 콘퍼런스 강연 "바이오·미래차가 데이터의 寶庫"

(보고)

"하만 인수로 자신감 얻어... 앞으로 더 큰 M&A 추진할 것"

지난해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이후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요 타깃이 될 사업 분야는 미래차와 바이오다.

4월 삼성전자에 따르면 손영권 삼성전략혁신센터(SSIC) 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콘퍼런스 '슬러시(SLUSH) 2017'에서 연사로 나서 "하만 인수로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더 큰 딜(deal)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손영권 사장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동안 부품(DS) 부문으로 한정됐던 손 사장의 역할이 모바일(M)과 소비자가전(CE) 부문으로 확대돼 삼성전자 전체의 사업개발(BD·Business Development)을 총괄한다. 삼성 안팎에서는 오히려 부재로 인해 하만과 같은 대규모 M&A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손 사장을 중심으로 대형 M&A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손 사장은 '데이터 경제에서 혁신을 이끄는 법(Driving innovation in the data economy)'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0년 전인 2007년 세계 거대 기업 상당수가 석유회사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데이터를 다루는 IT 기업으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자원이 된 데이터를 쫓으면 비즈니스



손영권(왼쪽) 삼성전자 사장과 디비쉬 팔리월 하만 CEO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드록 호텔(Hard Rock Hotel)에 마련된 약 440평 규모의 하만 전시장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구현한 오아시스 콘셉트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 사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제품 회사에서 데이터 회사로 전환하는 일이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미래 자동차가 데이터의 보고(寶庫)"라고 말했다. 하만을 잇는 후속 대형 M&A는 바이오와 자율주행차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주주다.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년 만에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최근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의료기기사업부와 자회사 삼성메디슨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전장사업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1월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전격 인수했다. 9월엔 3억 달러 규모의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Samsung Automotive Innovation Fund)'를 조성하기도 했다.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는 스마트 센서, 마신 비전, 인공지능, 커넥티비티 솔루션, 보안 등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이 펀드의 첫 번째 전략적 투자로 자율주행 플랫폼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의 글로벌 리더인 TTTech에 75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손 사장은 "자동차 부품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헬스와 예방 의학 관련 기술에도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최고 경영진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며 "삼성에는 다양한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스타트업과의 협업과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록 기자 syr@

조직개편後 임직원에 'CEO 메시지' 보낸 권영수 LG U+ 부회장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5G·AI 승부 걸 때"

'5G 추진단' 새로 만들고 'AI사업부'는 직접 진두진휘 이달중 AI플랫폼 공개 방침



"2018년은 5G, AI 등 미래 산업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며, 시장 플레이어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철저한 미래 준비를 위해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G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5G추진단을 신설한다"며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파수 전략 수립, 커버리지 투자, 장비업체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5G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수(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G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 5G 기술과 AI 기술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관련 부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5G 올인 전략과 함께 이달 중으로 AI 플랫폼을 공개할 방침이다.

권 부회장은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1일 CEO 메시지를 통해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다"며 "미래 경쟁력의 구간이 될 5G, AI 분야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조직 개편을 통해 5G 시대 선도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5G추진단을 신설했다. 더불어 AI사업 전담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AI사업부를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5G추진단에는 최주식 부사장(현 FC부문장), AI사업부에는 현준용 전무(현 FC부문 AI서비스사업부장)를 각각 내정했다.

그는 "우리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5G와 AI사업을 수행할 조직을 정비했으니 열심히 달릴 일반 남았다. 전담 조직을 비롯해 전 부문,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끝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와 신뢰, 감동을 전함으로써 일등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반드시 일등 유플러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일등 유플러스를 위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법근 기자 nova@

넷리스트- SK하이닉스 소송제기 사례

- 2016년 9월 ITC에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 기업용 메모리 제품이 넷리스트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신청.
- 2017년 7월 독일과 중국 법원에 LRDIMM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신청.
- 2017년 10월 ITC에 SK하이닉스의 RDIMM, LRDIMM 등의 제품이 넷리스트 2개의 개량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신청.
- 2017년 11월 ITC,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의 SK하이닉스 RDIMM과 LRDIMM 메모리 제품이 관세법 337조 위반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
- 2017년 11월 ITC, 올 10월 제기한 소송서 SK하이닉스 제품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

美ITC, SK하이닉스 특허침해 조사 부정적 결과판 최대 8599억원 손실

잇따라 소송 제기 '넷리스트' 한인 기술자 주축 소규모 기업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10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3일 ITC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관세법 337조 조사 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제재가 실행되면 ITC는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북미 지

역에 공급하는 서버용 D램 반도체는 전체 매출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이 17조19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최대 8599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하이닉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ITC 행정법 판사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SK하이닉스에 소송을 건 넷리스트는 기업 중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샌디

스크, IDT, SK하이닉스 등 거대 기업들과 '특허전쟁'을 벌일 만큼 메모리 설계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 달러(약 254억 원)의 투자를 받고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를 체결해 관심을 끌었다. 또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 반도체 업계 인사들이 주축을 맡고 있다. 홍준기 넷리스트 창업자는 SK하이닉스의 뿌리인 옛 LG반도체에서 1998년까지 근무했고, 넷리스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업을 담당한 김지현 한국 지사장은 SK하이닉스에서 D램 설계·영업을 해왔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10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문제 삼은 특허는 이번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결정을 받은 특허와 매우 유사한 '패밀리 특허'로, SK하이닉스는 이번 건도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ITC는 소송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개시 결정도 절차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아이폰X' 대항마 '갤S9' 조기등판說...모습은?

1월 출시설 나왔지만 2-3월 유력 '갤S8'보다 베젤 더 얇아지고 전면 디스플레이 비율 90%로 일체형 지문인식 채택 안될 듯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갤럭시S9 예상 이미지.

내년 초에 공개될 삼성전자 갤럭시S9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2~3월 상반기 전라 스마트폰 갤럭시S9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부 해외 IT매체들은 비롯한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X에 대항하기 위해 갤럭시S9을 기존 공개 시기인 2~3월보다 이른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공개할 것이

라는 추측이 일었으나 삼성전자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 시기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통해 공개했다. 해외 IT매체들은 갤럭시S9이 전작인 갤럭시S8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에 세부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S9은 갤럭시S8, 갤럭시노트8과 마찬가지로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한 '인피니티(Infinity-무한대)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전망이다. 베젤은 전작보다 더욱 얇아져 디스플레이가 기기 전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갤럭시S8 디스플레이 비율은 전면부의 84%였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전면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센서는 갤럭시S9이 아닌 박자 늦은 갤럭시노트9에 장착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광호 기자 khlee@

CJ제일제당·대상, 中 환경규제 덕에 ‘라이신 特需’

라이신 최대 시장인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 육류 수요가 늘면서 CJ제일제당, 대상 등 라이신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환경 목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2015년에 진행됐던 정책이 ‘목표 제시’ 수준에 머물렀다면 2016~2020년 진행된 이번 정책은 강제적 감축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기·수질 오염 유발 가능성이 큰 아미노산 공장들이 일부 가동 중단돼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돼지사료에 들어가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경기 회복으로 육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라이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하락세를 보이던 라이신의 가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박성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미노산 제조 시설은 기본적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처리 시설과 같

은 경기회복 육류 소비 늘었는데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공장 제재 일부 가동중단 라이신 가격 상승 세계시장 30% 점유 ‘CJ제일제당’ 라이신 사업 재개 ‘대상’ 수출 확대

은 환경 보호 시설을 필요로 한다”며 “자본력이 열악한 중국 현지 아미노산 기업들이 해당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로컬 업체의 위기는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한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라이신 수출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라이신 시장 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30%는 CJ제일제당이 점유하고 있다. 라이신 시장은 2020년 6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중국 선양공장 등에서 천연 원재료를 활용, 환경보호 역할을 해온 터라 중국의 환경 규제하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신뿐 아니라 아미노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도 성공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109억 원을 기록했다.

라이신 공급의 원조 격인 대상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 바스프에 라이신 사업을 매각했다가 2015년 화학제조업체 백광산업으로부터 1207억 원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재개했다. 대상은 라이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로 라이신 사업 부활이 그동안 그룹의 숙원이었다”며 “라이신과 전분당, 바이오 등은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고부가가치 아미노산 ‘L-히스티딘’ 개발에 성공하는 등 소재 부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상은 라이신 사업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기술력과 현재 가동 중인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설비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애란 KB증권 연구원은 “대상의 3분기 소재부문 영업이익은 가동률 상승에 따라 라이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부터 조미료 시장의 맞수였던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소재 부문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정책과 맞물려 라이신 시장에서 또 한 번 격돌하게 됐다. 고대영 기자 koda00@

연말 잦은 술자리 망가지지 않으려면 속취 解消劑로 ‘보호막’을...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속취 해소 음료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속취 해소 음료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판매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속취 해소 음료 시장은 약 1700억 원대 규모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거래된 속취 해소 음료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나 급증했다. 옥션 역시 10~11월 두 달 동안 규원 생쾌환 등 속취 해소제는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했고, 여명808 등 속취 해소 음료는 13% 증가했다.

옥션 마트실 백민서 실장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 전후 속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료가 인기”라며 “최근 들어 날개로 구입하는 사람보다 박스 단위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량으로 이전에 출시된 헛개 컨디션보다 50ml 늘었다.

안국건강의 ‘간에 좋은 밀크씨슬’은 주원료인 밀크씨슬 추출물을 중심으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 셀레늄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포함된 복합 제품으로 간 건강과 항산화 효과로 인해 속취 해소 기능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동아제약도 ‘모닝케어강황S’를 올려서 새제품 선보였다. 모닝케어 강황S는 470ml로, 기존 ‘모닝케어 강황’(100ml)의 용량을 약 5배로 늘려 술자리에서 여럿이 나눠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MP그룹이 운영하는 커피·머핀 전문점 마노핀은 ‘해장커피’와 ‘황개차’ 등 ‘해장음료’ 2종을 최근 출시했다. ‘해장커피’는 100% 아라비카 프리미엄 원두의 아메리카노에 쌉싸름한 풍미의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생화엑기스, 꿀 등을 첨가한 음료다. ‘황개차’는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과 꿀, 대추 농축액, 감초 추출물을 시원한 얼음물과 함께 블렌딩한 음료로 속취 해소 효과를 높였다.

기존의 마시는 음료 형태에서 벗어나 환, 분말, 젤리, 아이스크림 등 이색 제형을 앞세운 속취 해소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형태가 바뀌면서 제품의 크기도 줄어 휴대성이 높아졌으며 귀여운 캐릭터 등 독특한 디자인을 반영해 젊은 여성 층까지 공략하고 있다.

삼양사의 규원 ‘생쾌환’은 환(丸) 형태의 건강기능 속취 해소 제품이다. 효모 추출물, 식물혼합농축액(헛개, 창충, 산사나무열매, 황꽃) 등 유효성분을 고농축해 빠른 속취 해소를 돕는다. 1회분씩 개별 포장되어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다.

랫헬메이크오버의 ‘몬스톡’은 강황, 치커리, 밀크씨슬이 주요 성분으로 ‘맛있는 속취분말’을 내세웠다. 특히 인도산 강황을 15% 함유해 알코올 분해 효과와 담즙 분비 촉진, 손상된 간 보호 등 간 기능 회복을 돕는다.

한독의 ‘레디큐슈’는 젤리 형태의 속취 해소제로 달콤한 맛과 쫄쫄한 식감을 준다. 3개의 젤리를 개별 포장해 휴대성을 높였고, 음주량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밖에 신세계그룹 편의점 이마트24가 자체 개발한 PB 제품으로, 속취 해소 아이스크림 ‘컨디바’가 있다. 속취 해소에 좋은 헛개나무 농축액을 함유하고 자몽 맛을 더해 속취 후 불편한 속을 달래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속취해소 음료 시장 작년 1700억 규모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전통 강자 ‘컨디션 여명808’ 성능 개선

여러 사람이 나눠 마실 수 있도록 ‘모닝케어강황S’ 470ml 대용량 선보여 휴대 편한 丸형태 ‘생쾌환’... ‘해장커피’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매 상승세에 힘입어 업체에서는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국내 속취 해소 시장을 개척하며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CJ헬스케어는 최근 속취 해소 성분을 추가한 프리미엄 속취 해소 음료 ‘컨디션CEO’를 출시했다. 컨디션CEO에 새롭게 추가된 월계수잎, 자리, 선인장 열매(백년초) 복합추출물은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 효과가 뛰어나 2015년 ‘속취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로 인정받았다. 컨디션CEO는 150ml의 용



골든블루 사피루스의 부드러운 진화

목넘김은 부드럽게, 디자인은 눈부시게

고유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위스키 본연의 맛과 향을 가진 골든블루 사피루스가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또 한번 진화하였습니다



DRINK SMOOTHLY 골든블루는 부드러운 음주문화를 선도합니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력손실이나 지체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븐스프링스, 크리스마스·송년회 겨냥 新메뉴 26종

삼양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친환경 셀러드 및 그릴 레스토랑 세븐스프링스가 연말을 맞아 메뉴를 전면 개편한다.

세븐스프링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겨냥해 ‘고메 윈터랜드(Gourmet Winterland)’를 주제로 기획한 겨울철 신메뉴 26종을 12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메뉴는 송년회 등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찜과 볶음, 구이 등 핫푸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겨울 제철 재료인 굴을 활용한 ‘중화식 마늘 석화찜’과 ‘중화식 굴탕면’ △ 최근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중동식 칩샐러드와 후무스’ △ 흰 살 생선으로 만든 ‘이탈리아식 생

선짬’ 등 다양한 글로벌 음식이 준비돼 있다.

세븐스프링스는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엄청난 와인과 생맥주를 2000원에 무제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같은



기간 와인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베어풋 핑크 모스카토’와 ‘올프블라스 레드 라벨 카베르네 소비뇽’ 등 2종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올프블라스 와인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와인

잔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세븐스프링스 관계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맥주, 와인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신한 디지털 이야기 #03



Q. 남들은 어떻게 해요?

고객의 작은 물음에도, 신한은행은 그냥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금융으로 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앞선 금융생활,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기반 상담서비스]를 만나세요!

고객의 작은 물음에 BIG하게 답하다



김*영 김*국 한*찬 한*희 홍*경 홍*원 최*우 최*민 김*우 김*정 김*성 김*택
 박*민 박*운 박*형 박*신 한*은 한*원 한*지 한*원 한*희 한*수 지*희 지*솔 진*화
 진*민 정*준 정*영 정*나 지*경 한*혜 한*미 한*영 한*호 조*진 조*진 조*현 주*현
 주*람 주*음 이*량 이*은 이*라이 이*림 이*미 안*람 안*름 안*혜 엄*지 엄*린 지*경 이*빈
 지*원 지*환 김*중 유*준 유*민 문*정 문*수 지*별 지*애 최*희 지*솔 지*서 한*교 한*혜
 백*랑 백*원 한*수 지*한 지*환 지*현 진*미 정*재 최*우 최*희 지*우 지*희 이*재 오*준
 오*옥 오*현 유*준 유*원 권*빈 임*진 문*명 오*우 윤*원 오*현 오*옥 오*성 홍*형 홍*연 오*환
 오*창 오*영 강*기 나*후 오*기 나*옥 오*주 오*진 도*민 민*준 박*호 박*진 선*근 임*빈
 임*우 오*영 최*환 유*성 유*원 유*형 정*성 정*호 이*엽 최*연 정*영 민*주 이*철 김*혜
 박*민 신*우 신*혁 심*우 성*재 손*성 신*혁 신*준 정*아 정*아 김*아 김*진 은*아
 은*수 전*아 전*승 금*아 정*민 정*주*현 추*아 위*아 엄*단 김*두 윤*아 위*아
 신*희 서*연 손*은 백*연 백*민 황*이 신*은 신*연 백*소 백*민 백*인 서*소
 황*아 황*미 양*희 양*아 임*아 강*연 강*희 고*현 전*아 전*지 백*비 배*미
 배*하 지*현 진*윤 한*주 박*라 민*설 박*단 이*리 손*환 손*지 김*은 김*빈
 전*주 전*지 최*윤 표*원 장*은 장*가 표*울 백*호 김*호 백*민 백*승 박*아
 방*아 변*연 나*현 강*선 윤*리 임*설 이*혜 여*현 안*솔 최*하 김*라 구*우
 강*민 윤*휘 서*현 서*연 도*혁 김*류 정*혁 위*연 장*후 추*하 추*혁 안*현
 유*혁 이*민 임*후 유*현 손*성 성*우 승*준 신*원 심*호 손*민 조*승 위*후
 김*준 표*현 여*우 유*우 나*진 마*우 명*영 문*민 모*현 추*지 신*미 손*은
 박*미 차*라 채*라 현*진 홍*미 강*욱 김*훈 장*원 양*영 장*우 채*린 임*린
 권*빈 권*나 민*아 장*현 노*아 오*나 방*아 김*원 설*신 김*준 김*춘 장*나
 권*연 권*재 장*수 정*지 주*민 장*진 최*민 현*현 한*현 한*유 하*희 진*연 권*나 원*민 안*영 연*현 함*영 공*린 노*지
 라*민 임*민 임*연 강*리 명*아 설*지 송*솔 성*희 진*은 김*원 장*지 장*혜 김*리 한*은 손*림 손*승 김*조 백*수 신*영
 김*연 김*레 신*승 김*유 박*준 김*한 김*영 김*민 백*현 김*명 소*정 김*열 홍*민 김*태 김*훈 김*람 이*원 김*신 은*휘 김*성
 김*복 김*훈 김*권 김*탁 차*솔 송*일 안*정 조*숙 김*희 배*호 신*경 서*지 정*은 최*정 황*자 이*숙 임*택 김*경 김*희 박*선
 박*래 진*정 엄*미 노*정 변*근 차*지 김*훈 김*미 박*고 고*지 성*석 석*우 유*은 윤*식 정*호 최*환 김*훈 김*영 안*희 윤*환
 손*수 손*민 원*미 김*정 김*은 안*성 김*영 김*우 김*진 김*정 구*미 정*혜 이*재 김*수 윤*영 김*연 박*연 배*지 주*웅 김*수
 옥*진 옥*리 백*연 신*윤 강*수 이*권 박*이 이*경 박*선 정*현 노*수 배*찬 김*중 권*구 신*희 김*욱 유*랑 신*덕 김*원 김*호 김*혜
 김*민 나*희 최*경 박*영 박*주 박*준 박*수 최*혜 권*우 김*겸 박*천 송*현 안*연 엄*현 하*서 강*필 강*정 강*지 강*영 강*현 공*탄
 김*겸 김*경 김*진 김*식 김*윤 김*라 김*지 양*훈 이*진 진*근 황*복 안*세 서*진 문*화 문*경 정*은 서*현 정*일 조*아 박*준 박*희
 박*민 조*아 박*룡 서*승 이*영 김*구 홍*애 조*현 심*은 최*영 강*준 박*진 남*분 오*경 박*문 김*주 김*애 전*희 이*원 김*정 송*희 이*환
 양*석 황*영 신*균 박*진 윤*영 최*숙 이*지 손*선 최*영 한*숙 장*화 양*모 임*리 윤*정 이*님 신*자 김*희 김*자 박*선 오*주 김*자 김*진
 김*영 장*주 김*숙 나*정 장*숙 김*진 배*영 이*정 최*화 이*수 이*주 박*우 선*화 양*아 하*아 이*윤 신*현 조*희 박*희 오*연 이*희 김*선
 임*규 노*정 천*영 이*희 송*숙 박*주 김*주 황*주 정*욱 이*나 이*아 김*진 박*아 임*미 강*선 김*희
 조*진 권*미 윤*민 박*미 허*지 남*영 이*현 이*정 송*주 조*경 전*경 김*희 김*희 박*아 김*희 최*민
 안*영 김*정 김*임 송*욱 김*숙 오*영 유*숙 박*정 장*란 김*자 김*애 지*선 김*미 박*근 이*영 장*화
 김*연 김*호 임*자 허*희 문*름 최*욱 허*나 김*훈 안*선 옥*숙 손*영 이*경 김*기 박*경 권*화 공*숙
 남*연 남*혜 이*주 김*이 공*경 정*홍 정*정 신*정 유*민 송*규 김*숙 정*영 김*민 김*영 박*연 장*애
 한*정 김*령 김*혜 허*연 최*애 양*원 김*중 윤*호 류*희 김*연 강*수 경*아 손*지 유*솔 김*희 전*은
 윤*원 최*지 임*혜 한*리 라*은 송*림 신*승 현*조 표*수 도*영 박*연 백*레 신*지 김*진 박*호 김*홍
 김*우 김*명 백*선 김*문 소*봉 김*강 홍*주 김*구 김*호 김*태 이*추 김*수 윤*영 김*연 김*한 김*로
 김*원 김*은 차*훈 송*혁 안*유 조*희 김*정 배*한 서*후 정*범 최*주 황*연 이*희 임*아 김*민 김*경
 박*민 진*익 박*철 엄*현 노*수 변*권 차*연 김*욱 김*모 박*순 고*상 성*우 석*후 윤*은 윤*이 정*시
 최*아 김*은 김*근 안*휘 윤*훈 손*연 손*미 원*호 김*나 안*노 김*만 김*태 김*민 김*신 구*문 왕*은



*** 빅데이터 기반 상담서비스란?**
 전국 7,000여개의 디지털 창구에서 성별, 직업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금융생활과 재무현황을 비교하는 신한은행만의 빅데이터 상담서비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7-2-1769호(2017.11.02~2018.12.31)

특별공급 자격·청약가점제·대출조건, 이거 다 맞추라고요?

신혼부부 '뉴스테이·공공분양'이 代案!

투기 수요 잡으려는 정부 정책에 일반 청약 '높은 문턱' 임대료 상승폭·분양가 저렴해 상대적으로 '낮은 문턱'

◆지난 9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이 전용 59㎡ 분양가는 약 11억 원이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합이 586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7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특별공급 '신랑'을 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해당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10가구) 모집에 132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당첨자 중 3명은 20대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해 투기수요 옥죄기에 나서면서 100% 청약 가점제, 대출 규제 및 축소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착 현실과 동떨어진 여러 조건들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월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88만 원, 맞벌이는 120%, 586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 기준 초혼 평균 시기가 남성 32세, 여성 30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소득기준 조건을 만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만약 소득기준을 만족시켰더라도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신혼부부가 보유한 현금이 턱없어 하기 때문이다. 운 좋게 당첨이 됐더라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부모의 지원이 없는 이상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쓰자니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의 가점론은 사실상 당첨조차 힘든 상황이다.

결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재산이 많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상황이고 청약 경쟁은 30대에겐 언급생심 남볼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상향, 지원 대상 확장,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 등을 계획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룰 선택지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요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수 (일반분양)	공급 시기	시공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6번지 일대	독산역 롯데캐슬	59~84	919	12월	롯데건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개봉역 센트레빌(가칭)	59~84	1,089		동부건설, 범양건설
전주시 덕진구 예곡시터 8블록	전주 예곡시터데시앙	59~84	826 (기업형 임대)	11월	태영건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구로 고척동 기업형 임대	69~74	2,214	2018년 상반기	현대산업개발

공공분양	소재지	면적	가구수	공급 시기	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사정보타운 S9블록	과천지사정보타운 S9블록 공공분양	60 이하	647	2018년 상반기	LH·GS건설
경기도 수원시 고동동 270-7일원	수원고동 푸르지오자이	59~101	3,462(300)		GS건설·대우건설
인천시 송의동 용마루	인천 용마루자이 1블록	미정	2,000		LH
주권환경개선사업지구 1블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공분양 등이 부상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상승폭이 적고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하며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하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잡아내려는 여러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다 보니 특별공급을 노리는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정부의 대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내집 마련을 위해 뉴스테이나 공공분양 같이 상대적으로 금액 부담이 적은 상품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공분양 단지를 내놓으며 이 같은 계층을 공략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뉴스테이 플러스·기업형 임대주택)의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에 나섰다. 캐이지엔씨개발이 시행하고 범양건설,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개봉역 센트레빌(가칭)'도 공급 예정이다.

내년에는 LH와 GS건설이 경기도 과천시지정보타운 S9블록에 공공분양 아파트 647가구를 상반기 공급할 예정이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LH와 GS건설, 대우건설이 힘을 합쳐 '수원고동 푸르지오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목! 이곳

롯데건설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

新婚 특별공급분 임대료 20% 낮고 8년 주거 보장·年 상승률 5% 이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 견본주택은 개관 30분 만에 상담석이 꽉 들어찼다. 특별공급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 데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우선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어 상담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젊은 부부부터 노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눈에 띄었다.

'독산역 롯데캐슬'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들어선다. 독산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시청 서울역 용산 등 서울 주요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도보권 내에 두산초, 기산중, 인천중 등이 위치하고, 흙플러스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도서관, 관공서, 문화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자

리잡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에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고, 주변 개발 기대감까지 가진 단지"라며 "문래 롯데캐슬의 결과도 예상보다 좋았지만 이곳은 주거여건이 더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공급하는 서울 첫 대형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였던 '문래 롯데캐슬'은 10월 말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60가구 모집에 930명이 몰려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물량은 20일 만에 모든 주택형이 완판됐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형의 경우 59㎡가 1억9800만원에 55만7000~59만7000원, 84㎡는 2억2000만원에 66만4000~71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신혼부



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 견본주택은 이른 아침임에도 상담코너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부 특별공급분 59㎡B 178가구는 1억 4400만 원에 45만6000~47만6000원으로 공급된다. 일반 표준형보다 20%가량 낮은 수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미만 또는 만 0~7세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뉴스테이는 주거기간이 8년으

로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총 919가구에 59A B C㎡가 602가구, 84A B㎡ 317가구가 구성된다. 1~4일까지 특별공급, 5~7일까지는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한다. 특별공급은 5일, 일반공급은 1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 재건축 8·2대책 후 최대 상승폭

지난주 0.55%↑...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아파트 중심 들쭉

이번 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상승폭이 또 다시 확대됐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55% 상승했다. 일반아파트 상승률은 0.20%로 지난주의 0.21% 대비 소폭 둔화됐고,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를 합친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0.26%로 지난주와 같았다. 재건축은 높아진 호가에도 드문드문 거래되는 일부 물건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 상승은 △서초(0.54%) △동작(0.42%) △송파(0.37%) △성동(0.35%) △양천(0.33%) △강남(0.31%) 순으로 나타났다. 서초는 반포동 주공1단지가 4500만~1억2500만 원, 잠원동 한신4차가 2500만 원~5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2000만~4000만 원의 상승이 있었다. 양천은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가 2000만~7500만 원, 목동 현대PARK가 2500만~4000만 원 상승해, 목동 일대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했다.

신도시는 평촌과 위례, 일산, 분당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0.04% 올랐다. 율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 개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당장의 주택매입 계획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겨울 비수기의 본격적인 시작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매매·전세시장 모두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도 상승세 유지...수도권이 주도

전세는 대체로 안정...국지적 상승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인기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이 올해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9일 대비 11월 13일 기준 매매가격은 0.13% 상승, 전월세통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5% 상승, 월세가격은 0.05%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매매 가격의 경우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줄었다. 실수요자에게 인기 있는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에 대한 수요와 재건축 단지의 사업진행 단계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24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투기 수요가 줄고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지난달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36%), 대전(0.27%), 대구(0.26%)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36%), 울산(-0.21%), 경북(-0.13%) 등은 하락했다.

전세가의 경우 거주 선호도 높은 역세권 대단지 및 신축 아파트 중심의 막바지 가을 이사철 수요와 일부 매수대기자들의 전세유지 수요 등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공급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어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5383만9000원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8804만7000원, 수도권 3억4592만8000원, 지방 1억7065만2000원으로 각각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 대비 소폭 올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得? 失?

최영진의 현안진단

정부, 유인 정책 올해안 발표
신규 단지 低평가·인상 제한
손해 가능성은 특수한 사례
인센티브 턱으로 이점 많아

다주택자를 제도권 임대사업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벌써 나왔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조율이 잘 안 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임대사업 유인책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은 세법 개정 작업 없이는 불가능한 처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직장 가입자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구상은 제 효과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느 정도 유리할까.

주택시장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많아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보통의 주택경기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좀 나을 듯하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누진제를 적용하고 임대 소득을 철저히 밝히내 세금을 물릴 경우 그렇다는 소리다. 여기다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러나 대단지 신규 입주단지는 초기 임대료가 낮게 평가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리할 수도 있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변 시세 절반 가격의 전세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전세가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걸려 있는 임대사업자로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특수한 사례이고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덕분에 임대사업자가 여러모로 이득이다.

계산을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간 2% 이하로 떨어지고 임대료 상승폭이 15%만 돼도 2주택자 입장에서는 등록을 안 하는 게 이득이다. 등록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금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다주택자를 옥죄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할 참이어서 공식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 가지로 심간이 편할지 모른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주택가격은 몰라도 임대료는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싶다. 임대료가 안정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가 많은 곳은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 및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부동산 대기자 choibak14@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달 첫째 주 전국에서 1만6000가구에 육박하는 분양 시장 큰 장이 선다.

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 건설사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집단체출 여신규제와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양도세 증과 등을 피하기 위해 미뤄던 분양 물량을 이달에 대거 쏟아낸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의 '김포한강신도시구래역 에미지' 등 4122가구가, 지방에서는 강릉 송정동 '강릉아이파크' 등 1만18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 거여·마천뉴타운의 첫 분양 아파트인 's원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은 8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날짜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12/5 (화)	접수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롯데캐슬(뉴스테이) (-12/7)	1522-0085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센트럴헤센 1순위	031427-3450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4차동원로알뜰포레 ♣ (-12/6)	1522-2367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라온프라자 1순위	1566-9973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성산위두크 1순위	064722-2399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구래역에미지(Cc-03) 1순위	1899-7642
				경기 시흥시	장현동	장현지구모아미래도에듀포레(C2) 1순위	1899-1366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센트럴헤센 2순위	031427-3450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신안스벨시그니처(A16) 1순위	031656-7090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4차동원로알뜰포레(C4) 1순위	1522-2367
12/6 (수)	접수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역파라곤(C9) 1순위	1855-0080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역이츠카운티 1순위	051336-2900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우방아이유엘 1순위	053762-9955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산아이위시네이저 1순위 (해당지역)	053768-3355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신아리채리버힐즈 1순위	062375-9400
				강원 강릉시	유천동	강릉유천더테라스아리스타 1순위	033647-7778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라온프라자 2순위	1566-9973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성산위두크 2순위	064722-2399
				세종 세종시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2-4생활권P4구역HC3BL)	1522-0066
				세종 세종시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2-4생활권P4구역H03BL)	1522-0066
12/7 (목)	접수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구래역에미지(Cc-03) 2순위	1899-7642	
				경기 시흥시	장현동	장현지구모아미래도에듀포레(C2) 2순위	1899-1366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신안스벨시그니처(A16) 2순위	031656-7090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4차동원로알뜰포레(C4) 2순위	1522-2367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역파라곤(C9) 2순위	1855-0080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역이츠카운티 2순위	051336-2900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우방아이유엘 2순위	053762-9955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산아이위시네이저 2순위 (기타지역)	053768-3355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신아리채리버힐즈 2순위	062375-9400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아이파크 1순위	1566-7550
12/8 (금)	접수	강원	강릉시	유천동	강릉유천더테라스아리스타 2순위	033647-7778	
				서울 송파구	거여동	e원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0213446-1199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에코자이비어	1670-7677
				경기 김포시	고촌읍	캐슬&파밀리에City	1899-2002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구래역에미지(Cc-03) ♣ (-12/10)	1899-7642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산아이위시네이저 2순위	053768-3355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아이파크 2순위	1566-7550

(주)★=오피스텔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 3순위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美軍이 폭격한 하노이에 첫 맥도날드

‘황금아치’ 시대 맞은 베트남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황금아치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2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첫 매장을 열었다. 미국과 베트남은 1960~1970년대 베트남전을 치르며 원수 지간이 됐다. 그러나 하노이에 맥도날드가 1호 매장을 열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3일 분석했다.

미국의 상징인 맥도날드는 2014년 2월 베트남 호찌민 시에 1호점을 개업한 이후 베트남에 16개 지점을 열었다. 그러나 수도인 하노이는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맹폭을 입은 만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컸다.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서기 어려웠던 이유다.

2일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남쪽에 문을 연 맥도날드 하노이 1호점은 2층 규모에 직원만 100명이다. 오픈 첫날 몰려든 고객들로 매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그중 한 명인 84세의 트란 딘 루에 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이다. 그는 “맥도날드가 하노이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밝혔다. 손녀와 함께 빅맥을 먹은 그는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인 맥도날드 매장이 수도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과 베트남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맥도날드 하노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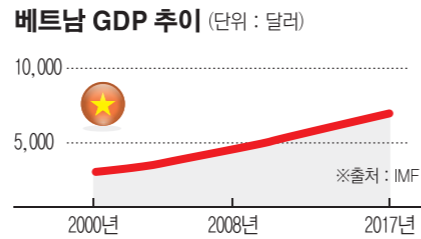
2일 문을 연 맥도날드 베트남 하노이 1호점.

니혼게이지신문

중산층 늘면서 대미 관계 변화 젊은층 ‘反美 대신 햄버거’ 선택 2014년부터 맥도날드 16곳 오픈 패스트푸드 年 두자릿수 성장률

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베트남 전 참전 군인인 90세의 타 수안 후옹 씨는 “이 패스트푸드는 아이들만을 위한 음식”이라며 “맛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노이를 포함해 북베트남은 베트남 전 당시 미국의 대대적인 폭격을 당한 지역이다. 현재 맥도날드가 들어선 곳에서 4km 떨어진 병원은 베트남전 때 폭탄이 떨어져 민간인 3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하노이 지역은 미국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다.



1995년 미국-베트남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베트남을 다녀간 미국 대통령은 4명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베트남과의 교역을 금지한 제재를 해제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 뒤 200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작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찾아 국민 음식 ‘분짜’를 먹어 화제가 됐다.

미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억6800만 달러(약 2913억1600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전체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정립한 ‘국제분쟁을 방지하는 황금아치 이론’의 전형적인 예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금아치 이론은 어느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오히려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려고 줄을 서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을 구가했다. 스타벅스, 버거킹, KFC 같은 서구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도 적극적으로 개방됐다. 특히 패스트푸드 분야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베트남 국민의 소득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뛰었다. 현재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0달러에 이른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패스트푸드 산업은 지난 5년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 30세 미만 인구는 전체 9400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베트남의 패스트푸드 산업이 유망한 배경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애플·구글 CEO 앞에서 시진핑 “인터넷 점차 개방”

中 세계인터넷대회

만리방화벽 등 규제 유지에도 IT 공룡들’ 시장 확대 청신호 팀 쿡 “中 앱개발자 18조원 수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 세계에 대해 인터넷 문호를 열겠다고 밝혔다. ‘만리방화벽이 사라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글로벌 IT 기업의 중국 시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 주석은 3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황룽밍 중앙선전부 부장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국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문이 점차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이버관리국(CAC)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왕후닝 상무위원은 “모든 당원에 봉사하고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시스템을 개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대회에서 인터넷 검열 및 규제 기술 발전과 사업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이번에도 ‘인터넷 주권’을 옹호했다고 전했다. 2년 전 대회에서 시 주석은 인터넷 주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터넷 주권이란 정부가 외부 간섭 없이 자국의 인터넷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 기업이 현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방화벽 우회 도구를 금지했다. 7월부터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전면 금지해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VPN앱을 삭제했다.

중국의 주요 인터넷 규제

2017년	11월 ‘스카이프’ 앱스토어 삭제
	10월 애플워치3 통화·문자 송수신 차단
	페이스북 메신저 앱 ‘왓츠앱’ 차단
	7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폐쇄 명령
2014년	홍콩시위 계기로 인스타그램 차단
2010년	구글 철수
2009년	페이스북 차단

규제 당국은 이 같은 법안이 국제 법규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외국 기업을 부담하게 겨냥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날 대회에는 미국 대형 IT 기업 임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페이스북 관계자와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회장에서는 구글 접속이 허용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쿡 CEO는 “개방적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이번 대회의 주제이자 애플이 나누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많은 파트너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쿡은 중국 앱스토어의 개발자가 180만 명이며 그들은 1120억 위안(약 18조 4217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앱스토어 총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CNBC는 쿡이 올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당국의 규제에 따라 VPN앱과 메시징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클라우드 데이터를 현지로 이전했다. 이에 일부 사용자와 시민단체로부터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주혜 기자 winjh@

독일 등 유럽 곳곳 크리스마스 테러 경계 강화



독일 뮌헨 마리엔 광장 ‘크리스마스 마켓’을 3일(현지시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IS가 배후를 지체한 트럭 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19t 트럭이 거리를 덮치면서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유럽 각국의 경계가 강화됐다. 영국과 스위스 등도 크리스마스 마켓에 경찰을 배치했으며 일부는 차량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글·페북·링크트인 한자리에...유럽 실리콘밸리로 떠오른 더블린

(아일랜드 수도)

‘브렉시트’ 대체 도시로 관심 IT·금융 결합한 핀테크 강점 스타트업 경쟁 격화 우려도

아일랜드 더블린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을 높이는 영향이다.

2일 CNBC에 따르면 더블린의 ‘그랜드 캐널’ 측은 ‘실리콘 북’이라고 불린다. 리피 강변을 따라 10분만 걸으면 구글, 페이스북, 링크트인 같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모두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 이들 거대 IT

기업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아일랜드를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더블린이 브렉시트의 혜택을 보는 대표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글로벌 금융과 IT 산업을 주도했던 런던을 대체할 만한 도시가 필요해졌고, 그 후보로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이 물망에 오른 상황이다. 그 속에서 더블린도 유망 도시로 떠올랐다. 특히 더블린은 핀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

더블린테크서밋의 반 잉글리시 최고경영자(CEO)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아일랜드의 핀테크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런던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런던의 소음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런던은 현재 핀테크 기업이 과포화 상태인데, 이에 비해 아일랜드의 핀테크 시장은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아일랜드투자자협회의 레지나 브래니 대표는 더블린의 핀테크 산업이 브렉시트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더블린이 브렉시트 이후 핀테크 허브로 떠오를 것이라는 데 확신할 수 없다”며 “영국은 여전히 아일랜드보다 신생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지원은 워낙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기업청의 마리카 맥카빌 홍보팀 수석 대표는 브렉시트가 아일랜드에 기회와 위험, 두 가지를 동시에 안기

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 노동력의 이동을 차단하면, 아일랜드 스타트업들은 유럽 전역을 누비며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영국 기업이 브렉시트 여파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져 영국을 떠나 더블린으로 이주하게 되면 아일랜드의 스타트업은 더 큰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빌 대표는 “영국 정부는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브래니 대표와 같은 평가를 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젊은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며 “미국의 IT 기업과 대적할 만한 아일랜드 IT 기업을 만들려면 그들이 더 나은 실패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CEO 라운지

‘IPO 승자의 저주’ 피하려면

상장 후 주가 폭락...“유능한 CFO 찾아라”

재무역량·투자자 소통 강화해야 ‘블루에이프런’ CEO 사임서 교훈

미국 식자재 배송업체 블루에이프런의 맷 셸즈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쓸쓸하게 퇴장하면서 ‘기업공개(IPO) 승자의 저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블루에이프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셸즈버그가 사임하고 브래드 디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그 뒤를 잇게 된다고 발표했다. 셸즈버그는 회장으로 회사에 계속 남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사실상 퇴장당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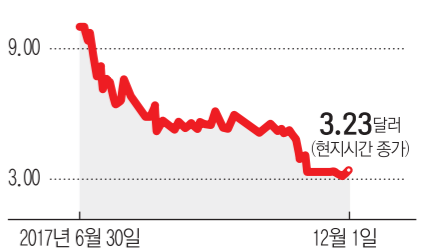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루에이프런이 6월 증시 상장 이후 실적 부진과 주가 폭락에 계속 허덕이는 가운데 공동 설립자인 셸즈버그가 물러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IPO 전반 해도 블루에이프런은 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막상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상황은 역전됐다. 아마존닷컴이 홀푸드마켓을 인수하면서 경쟁 격화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회사 주가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약 70% 폭락했다. IPO를 실시한 이후 투자자들의 냉정하고 세밀한 평가 속에 주가가 곤두박질친 다른 많은 기업의 뒤를 잇게 된 것이다.

3월 증시 상장한 스냅도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 떨어진 상태다. 스냅은 난국을 타개하고자 최근 핵심 제품

블루에이프런 주가 추이

(※출처: 블룸버그)



인 스냅 앱 디자인 전면 개편에 나섰다. 트위터도 IPO 이후 실패한 기업으로 꼽힌다. 트위터의 현재 주가는 20달러 수준으로, IPO 당시 공모가 26달러를 밑돌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털 안드레센호로위츠의 제프 조던 파트너는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은 비교적 초창기에 IPO에 나서고 그 이후 장기적으로 설립자들이 회사를 잘 이끌어왔다”며 “CEO들이 IPO에 나서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IPO에 나설 기업들은 훌륭한 CFO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고의 CFO는 IPO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능숙하게 처리해 CEO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상장 이후에는 CEO보다 더 많이 투자자, 애널리스트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사에 걸맞도록 재무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준비 역시 CFO의 몫이다.

배준호 기자 baehj94@

“韓 교육 열정 높지만 자기주도 학습 부족”

▶ 교육시장 ‘혁신 바람’ 넣는 스냅에스크 티모시 유 대표

“한국은 OECD 국가 중 시교육 의존도가 단연코 1위일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지만 정작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면서 학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호기심과 질문에 기반한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국가이지요.”

홍콩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으로, 모바일 튜터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티모시 유(Timothy Yu·余佑謙·사진) 스냅에스크(Snapask) 대표는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9월 진출한 한국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유 대표는 구글과 에어비앤비 한국 지사장을 역임한 이준규 대표와 함께 한국 지사를 꾸리고 비효율적인 국내 사교육 시장을 혁신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유 대표가 2015년 홍콩에서 창업한 교육 스타트업 스냅에스크는 창업 3년 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등 7개국에 진출하며 아시아 전역에 ‘교육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유 대표는 “교육은 인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제대로 된 혁신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교육은 학

호기심·질문 기반 공부 필요 문제, 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담당 교사가 막힘없이 술술~ 포브스 뽑은 ‘젊은 창업자 30인’

생이 무언가에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문을 장려하지 않는 아시아 교육 커리큘럼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느꼈다”며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스냅에스크를 소개했다. 학생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스냅에스크에 올리면 수학을 전공한 튜터가 핵심 개념을 설명해 주고 비슷한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머신러닝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의 풀이 과정과 오답 습관을 추적해 분석한 후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공교육 영



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스냅에스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시아 각국 학생들은 35만 명, 튜터는 2만 명에 이른다. 야심찬 목표와 성과를 바탕으로 유 대표는 지난해 포브스가 뽑은 30세 이상 창업자 30인에도 선정됐

다. 각국 투자자들도 그의 뜻에 공감, 스냅에스크는 창업 3년 만에 이미 2300만 달러(약 25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스냅에스크 교육의 대원칙은 분명하고 만국 공통적이지만, 각국 진출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로 요약된다. 유 대표는 “교육 시장이야말로 각 나라마다의 문화가 녹아있는 시장”이라며 “현지팀의 판단을 무엇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글로벌화와 현지화 사이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귀띔했다.

스냅에스크는 2020년까지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교육시장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은 아시아 시장이 앞서 간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 및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 대표는 한국의 벤처 창업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홍콩보다 크기 때문인지 몰라도 해외 진출에 대해 적극 고려하고 실행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AI에 인성 불어넣도록 노력해야” 마윈 “기계가 인간 뛰어넘을 수 없어”

세계인터넷대회... AI 긍정론 퍼력

글로벌 IT 산업을 이끄는 두 거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축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는 이날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 기조연설에서 AI 긍정론을 퍼력하면서 AI에 인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간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AI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나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우리 모두 기술에 인성, 인간의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쿡 CEO는 또 “미래 인터넷과 AI기술은 사생활 보호와 보안, 개방과 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이끄는 마윈 회장도 이날 연설에서 “인류는 기계와 달리 영혼이 있고 창의성이 있다”며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중국 우전에서 열린 ‘월드인터넷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전/AP뉴스

마 회장은 AI로 인간의 일자리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계가 제조업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며 “실상 새 기술은 인간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있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0여 년 전 중국은 일자리 우려로 철도 도입을 거부했지만 현재 중국 철도 산업에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고 있다”며 “현재 인쇄 매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택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산업 혁신에 의한 일자리 감소 우려를 불식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찾아가는 베이킹클래스



“제빵사 꿈 이루세요” 신세계푸드, 취약계층 학생에 발효기 등 베이킹 도구 기증

신세계푸드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전연동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제빵사를 꿈꾸는 사회 취약계층에 베이킹 도구를 기증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기증된 도구는 발효기, 냉장고, 믹서 등 약 800만 원 상당이며 교육 기반이 부족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전달돼 제빵사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기증식과 함께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도 함께 진행됐다. 신세계푸드의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는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기업의 특성을 살려 취약계층 학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연간 4회씩 진행해 온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올해 네 번째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에서는 신세계푸드 소속 제빵 기능사와 임직원 10여 명이 후생원생과 장애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드는 법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정 기자 mj@

‘SAT’ 만점 하버드대 학생 흥찬의 ‘귀신잡는’ 해병 입대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받고 미국 명문 하버드대를 다니던 한국 청년이 ‘귀신 잡는 해병’이 됐다.



3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흥찬의(21·사진) 이병은 지난날 30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수료식을 마쳤다. 초등학교 시절인 2008년 수학길에 올라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흥 이병은 ‘SAT’에서 만점인 2400점을 받고 2015년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던 그는 8월 해병대에 자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롯데, 구세군 ‘골드실드도너’ 감사패 받아

아동센터 리모델링·청춘책방 전개

롯데그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골드실드도너(Gold Shield Donor)’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골드실드도너는 구세군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감사패다. 이날 감사패는 김필수 한국구세군 사령관이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에 게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롯데는 올해 한국구세군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mom 편한 썬다락’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리모델링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캠페인으로 롯데는 매년 20개소씩 지원할 예정이다.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이 1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김필수 한국구세군 사령관으로부터 ‘골드실드도너’ 감사패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

지나해부터 만들고 있는 ‘청춘책방’은 외곽지역 장애들이 독서와 휴식을 취하

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까지 총 22호 점을 만들었다.

또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유통인구가 많은 지점에 구세군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날 1일부터 롯데월드타워 앞에 초대형 자선냄비를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시민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은 구세군과 손잡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

성공적 복귀전 치른 우즈 “샷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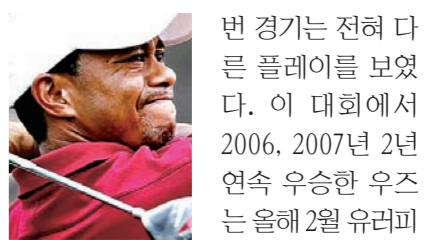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최종 -8

“허리 통증에 시달릴 때는 세상이 너무 작아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에 복귀하니 전 세계 팬들의 응원에 놀랐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42·미국)가 72홀을 통통없이 소화해 낸 뒤 한 말이다. 우즈는 4일(한국시간) 바하마 뉴 프로비던스의 알바니 골프클럽(파72·7302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빅 이벤트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 최종일 경기에서 4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80타(69-68-75-68)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성공적인 복귀전이다.

우즈는 “일찌감치 이곳 골프장에서 연습라운드를 많이 했다”며 “무엇보다 드라이브 샷이 좋았다”고 경기 소감을 털어놨다.

우즈는 2016년 복귀할 때와 달리 이



벤 경기는 전혀 다른 플레이를 보였다. 이 대회에서 2006, 2007년 2년 연속 우승한 우즈는 올해 2월 유라피언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2라운드를 앞두고 허리 통증으로 기권한 뒤 4월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 드라이브 샷을 300야드 이상 날린 우즈는 2라운드 9번홀(파5·603야드)에서 2온 시켜 이글, 4라운드 7번홀(파4·336야드)에서 1온을 시켜 이글을 잡아냈다.

우즈는 “마음껏 휘둘렀는데도 허리 통증이 전혀 없었다”며 “내가 생각해도 이보다 더 잘 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미국 주간지 ‘피플’이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보이밴드’라고 소개했다.

美 피플 “방탄소년단 할리우드가 주목”

“세계서 가장 뜨거운 보이밴드”

미국 주간지 ‘피플’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4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배포될 피플 특별호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보이밴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플은 방탄소년단을 영국 아이돌 그룹인 ‘원디렉션’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피플은 20대 포퍼 세 명과 보컬 네 명으로 구성된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덤 이름은 ‘아미(ARMY)’라고 덧붙였다.

또 피플은 방탄소년단이 최근 열린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이하 AMA)에서 펼친 무대를 극찬했다.

피플은 “방탄소년단은 AMA에서 수많은 팬들을 낚았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노래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른 최초의 한국 보이밴드다. 할리우드는 방탄소년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0일 아시아 가수 최초로 AMA 무대에 올랐다. AMA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 방탄소년단은 NBC 간판 토크쇼인 ‘엘렌 드제너러스 쇼’, CBS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즈 제임스 코든’, ABC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등 미 방송 3사의 토크쇼는 물론 12월 마지막 방송될 ABC 신년 맞이 쇼 ‘딕 클라크스 뉴이어스 로킹 라이브’ 녹화까지 모두 참여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 다동·무교동 도시재생 사업 최불암, 명예 코디네이터로 활동

배우 최불암(사진) 씨가 서울시 다동·무교동 도시재생 명예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한다.



시는 5일 서울시 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도시재생생활화지역 27개소 통합워크숍’에서 최 씨를 명예 총괄 코디네이터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무교동에 있는 조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장으로 다동·무교동의 역사적 가치 회복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활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올 5월에는 조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시가 함께 재단 건물 앞에 직장인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물주와 상인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2015년 시작하여 이래 1단계 13개 지역이 현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2단계 14곳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통합워크숍에는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이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김수연 기자 queen33@

인사

-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고윤주
- ◆법무부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담당장 김영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인규 (3급 진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동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최태호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홍섭 △서울고용센터소장 임순순 △서울서부지청장 양승철 △천안지청장 고광훈 △전주지청장 정영상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법무지원과장 장현석
- ◆국토교통부 (과장급 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근해
-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진선영

부음

- ▲송진성(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 기획팀 책임사역)씨 장인상 = 2일, 서울고보마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2-836-6900
- ▲오태석(삼성서울병원 치과보존과장)·춘석(전 LIG 대표이사)·혜경(의사)씨 모진상, 박용덕(의사)씨 장모상, 유은실(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의사)씨 시모상 =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4

- ▲박옥재(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씨 별세, 사진(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육삼(서울신문 온라인뉴스국 나무뉴스부장)씨 부친상, 오종세(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씨 장인상 = 3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62-227-4381
- ▲신국주(전 동국대 총장)씨 별세, 최혜숙씨 남편상, 일수(전 낮산자동차 제너럴매니저)·위수(세기마치내과 원장)·영수(아쿠반구차 와세다 원장)씨 부친상 = 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10시, 02-2227-7550

Trust

SI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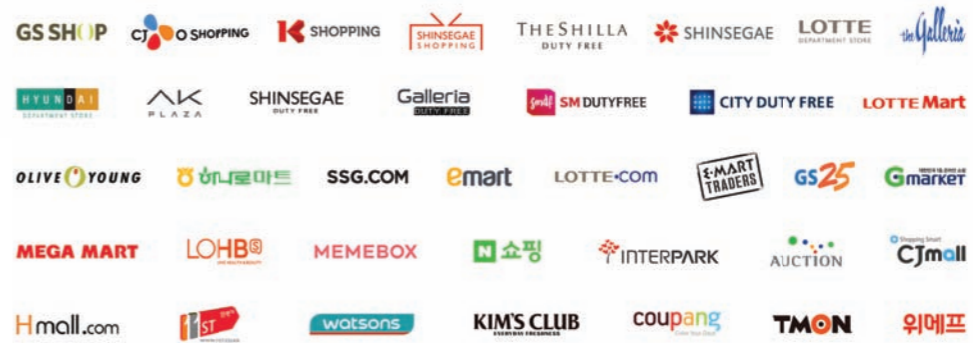


꼭꼭 감아라 TS로 감아라

TS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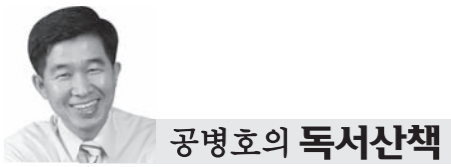
TS샴푸를 만날 수 있는 곳



SBS 아침연속극 '해피시스터즈' 메인협찬
120부작 / 12월 4일(월) 첫방송!

TS모델 황치열, 송지효, 차인표





공병호의 독서산책

하노 밖 2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역사를 종횡무진하듯 쓴 책이다. '인플레이션'은 역사상 치를 떨 만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의 하노 벡 등 작가들이 의기투합해서 내놓았다. 독일 최고 자산운용사의 창업자는 이 책을 두고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돈의 역사는 인플레이션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야기한 수천 년 세계 제국 흥망성쇠의 역사, 반영, 전쟁, 재앙을 다룬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면 독일인만큼 처절하게 그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다. 히틀러의 집권과 독일 패망도 결국 인플레이션의 틈새를 비집고 그가 집권할 빌미를

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자 화폐 발행량을 늘린다. 제3막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데,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려고 화폐발행량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제4막은 하강국면에 들어간 무렵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재앙을 막고자 상품 가격 동결, 금·은 거래 금지, 재산 몰수 등으로 대처한다. 결국 재앙이 오는 시기를 미루지만 제5막이 온다.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가치가 무너지면서 정부는 고통스러운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완화 정책이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그렇지만 불황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각국 정

김성희의 인문경영



CEO리더십연구소장

退職의 계절, 직장인 越冬준비

"저게 저절로 붙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동 몇 개/저 안에 천동 몇 개/저 안에 바람 몇 개.(하락)..."

선배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시를 동봉해 퇴직을 알리는 편지를 전해왔다. 답답한 시 인용과 함께 보낸 간단한 신상 소식이었지만 퇴직에 대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전, 그분의 야심찬 신년 사업 계획 포부를 들은 터라 가슴이 알알하게 아팠다. 언론에 인사 동정 소식이 빈번하다. 세 의자를 차지한 희소식은 그만큼 물러난 자 주인이 있다는 것과 동이다. 인생살이가 그렇지만, 늘 희소식의 행가래 소리는 시끌벅적하다. 그만큼 존재할, 아니 그보다 더 클 그늘진 이들의 소식에 대한 관심은 고적하다. 영전의 축배는 드높지만, 퇴직의 고배(苦杯)는 짙다.

바야흐로 제5의 계절, 인사철이다. 수능 추위 못지않게 매서운 게 인사 추위다. 엄동설한 겨울 바람보다 더 춥고, 매섭게 옷깃을 파고든다. 조직생활에서 한직(閑職) 발령은 억울하고 고깝다. 그래도 '라스트 맨 스탠딩',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를 새기면 그 뿐이다. 반전의 그날을 기다리며 견디면 된다. 퇴직은 다르다. 용도 폐기의 퇴물 선인 같아 시럽다. 남따러지에서 등 떠밀리는 것 같아 두렵다. 남들은 "그만하면 오래 했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정춘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많은 직장인들은 지금의 조직생활을 천년만년(千年萬年) 계속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다 황망하게, 허망하게 뒤돌아선다. 퇴직을 맞는다. 아니 당한다.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지만 나는 예외라는 것과 '직장인은 다 퇴직하지만, 나는 예외'라고 착각하는 것은 보편적 망상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현직에서의 조직 브랜드를 자신의 브랜드로 착각한다. 직장생활의 녹(祿)을 오

래 받을수록, 생각에도 교만의 녹과 몽상의 때가 덕지덕지 낀다.

제5의 계절, 퇴직철을 맞는 월동 준비의 요체는 '마음 내려놓기'와 '나 직면하기'다. 첫째, 인심의 염량(炎凉) 세태에 섭섭해하지 말라. 감탄고토(甘呑苦吐)가 아니라 시장의 당연한 법칙일 뿐이다.

'사기'의 '맹상군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3000명의 식객을 먹여 살린 제나라의 맹상군이 자신의 권세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표하자, 그의 식객 풍환은 이렇게 간(諫)한다. "무릇 일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부유하고 귀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고 천하면 따르는 이가 적은 것 또한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물건이 많은 아침 시장이, 이미 팔리는 것은 저녁 시장보다 사람이 더 붐비는 이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에 사람이 모였던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이익) 때문이었다. 아침 시장이 사람이 붐비는 것처럼... 그것을 본인의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

한 것은 착각일 뿐이다. 이제 저녁시장이 되어 좌판에 물건이 없으니 사람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 XXX도 당신이 다 키운 사람들이라고? 천만에, 그들이 도와서 당신이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사리에도 맞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라.

둘째, '내가 누군데'의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라. 퇴직 후 섭섭한 마음에 말끝마다 "내가 누군데"를 들먹이지 말라.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다.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 '참나무(The Oak)'에서 겨울은 직장인의 퇴직, 제5의 계절에 대비(對比)해볼 수 있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이후에도 우뚝 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참나무의 별거벗은 힘, 나뉠(裸力·naked strength)이다. 조직의 외투와 방패를 벗고 남은 나의 맨몸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게 나라고 하지 않는가. 조직의 가격표를 떼고 난 뒤 내 본연의 가치는 무엇인가.

麻藥보다 어려운 '돈 끊기'

제공했기 때문이다.

4부로 구성된 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거사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풀어놓은 돈의 향방과 과급 효과를 다룬다. 무엇보다 쉽게 읽히도록 술술 풀어 쓴 저자들의 필력이 대단하다. 스돈의 발명,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다. 스누가, 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용하는가? 스무엇이 자본주의의 판도를 움직이는가? 스어떻게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등 4부 11장으로 구성됐다.

인플레이션의 주연 배우는 국가인데, 저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과정을 5막 희곡의 세계에 비유한다. 제1막에서는 배우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재정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이다. 국가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폐를 발행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처음에는 토지, 건물, 귀금속, 세수, 식민지 혹은 기타 국가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지폐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보장된다. 제2막에서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국가는 경솔한 판단을 한

부는 형형색색의 종이돈을 찍어 내는 데 몰두한다. 게다가 양적 완화로 제로 금리에 접근하면 할수록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들은 "대량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현상에는 엄청난 위험이 숨겨져 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주식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현저히 높다. 저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뿌려놓은 돈으로 말미암아 "수년 내에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마약을 끊는 것에 비유한다.

경제에 대해 별다른 지식을 갖지 않은 독자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인플레이션 전후 이야기,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쏭달쏭

혜존(惠存)과 지정(指正) ①

꼭 전문가나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책을 내는 사람이 많다. 정년퇴임 완료로 제로 금리에 접근하면 할수록 글을 써서 지인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생활 수기나 투병기 등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선거철만 되면 책을 출간한 후 '출판기념회'를 여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책을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 책의 인표지에 흔히 책을 받은 분의 이름을 써서 '○○○ 선생님 혜존'이라는 식으로 '혜존'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은 젊은 층에서는 '혜존'이라는 말 대신에 '○○○ 선생님께', '○○○에게'라고 쉽게 쓰는 경우가 더 많고, 이른바 '팬 사인회'에서는 그냥 자신의 사인만 해서 나누어 주기도 한다.

혜존은 '惠存'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은혜 해', '보존할 존'이라고 훈독한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은혜로 보존해 주세요"라는 뜻이다. 즉 자신의 책을 받아서 잘 간직해 주신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는 뜻의 겸사(謙辭·겸손한 말)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는 받을 분을 향해 정중하게 '혜존'이라는 말까지 써놓고선 바로 뒤이어 주는 사람의 이름을 쓴 다음에 '증(贈)', 즉 '○○○ 증'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틀린 말은 아니나 '혜존'이라는 겸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증' 혹은 '奉'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낫다. '贈'은 '줄 증'이라고 훈독하며, 일반적으로 그냥 '증'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증'은 '드림 증'이라고 훈독하는 글자로, 매우 공손하게 드린다는 뜻이며, '奉(받들 봉)'과 함께 쓴 '奉'은 '받들어 드림'이라는 뜻이니 더욱 공손한 겸사이다.

그러므로 이왕에 앞에서 상대방의 이름 뒤에 '혜존'이라는 말을 썼다면 뒤에 자기 이름을 쓴 다음에 '증'이나 '奉'이라고 쓰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저모

영흥도 낚시배 전복, 13명 사망·2명 실종 "사고 대응 적절했나?"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배 선장1호(0.77톤급)가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와 충돌해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긴급구조에 나섰다. 충돌로 인한 강한 충격과 사고 해역의 강한 물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

사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지 4분 뒤인 오전 6시 13분께 고속 단정 출동을 지시했으며, 고속단정은 오전 6시 25분 진두항을 출발해 오전 6시 42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112 신고를 접수한 지 33분 만이었다.

해경과 군은 사고해역 인근을 8개 구역으로 나눠 해경 경비함정 30척과 해군 함정 7척, 관공선 1척 등 선박 3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야간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사고 이틀째 수색작업에는 함정 59척과 항공기 15대가 동원되고 수중 수색 인력도 5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종자가 육상 해안가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육상 수색 작업에도 1380명이 동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대응에 대한 네티즌 의견은 "빨랐"이라는 반응과 "늦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sun7****'은 "영흥도 해경 파출소와 사고 지점은 1.8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33분씩이나 걸렸다고? 늦장 대처가 골든타임을 놓쳤고 피해도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game****'은 "시간대별 대응은 빨랐고, 해경·해군이 총출동했을 정도로 만전을 기했다. 다만 추운 날씨와 빠른 유속이 문제였다. 인명피해가 큰 게 너무 안타깝다"라며 사고 대응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lij0403@



하이난 미션 힐스 블록베스터 골프 180

세계 최초·최대 골프 상품·180홀 라운드
매주 목요일(3박 5일) 일요일(4박 6일) 출발

밥 먹고, 골프하고, 스파하고, 잠자고, 또 골프하고
밥 먹고, 골프하고, 스파하고, 잠자고, 또 골프하고
밥 먹고, 골프하고, 스파하고, 잠자고, 또 골프하고
밥 먹고, 골프하고, 스파하고, 잠자고, 또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골프하고...

역사상 이런 골프상품은 없었다!

동남아 골프를 완전 뛰어넘는 럭셔리한 차원의 골프천국

‘평창 롱패딩’ 최대 수혜자는 ‘동전株’ 신세였던 ‘신성통상’

패션·유통업계를 강타한 평창 롱패딩 신드롬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평창 동계올림픽 라이선스 사업권자로 평창 롱패딩 제품을 기획·판매한 롯데백화점과 저렴한 가격대에 세련된 디자인, 한정판이라는 희소성까지 가진 평창 롱패딩을 구입한 소비자를 수혜자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의 수혜자를 꼽으려면 누가 뭐래도 평창 롱패딩을 제작한 의류업체 신성통상이다.

신성통상은 롯데백화점과 함께 ‘2018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 3만 개 한정판으로 평창 롱패딩을 제작했다. 평창 롱패딩은 거위 솜털(80%)과 깃털(20%)이 주원료로, 다른 업체 비슷한 사양의 30만~50만 원대 제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14만9000원에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소비자들이 평창 롱패딩에 열광한 대목도 바로 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이라는 ‘가성비’ 때문이다.

높은 가성비 비결은 제조사와 판매사 간 협업으로 유통 비용을 줄인 덕분이다. 한정수량 생산 및 완판 구조로 재고 처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신성통상이 베트남 현지 공장의 생산설비를 활용해 원가를 최대한 낮췄다.

열대산 신성통상 시장은 평창 롱패딩의 인기 요인을 “비정상가의 정상가화”를 꼽으며 평창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평창 롱패딩’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진열돼 있다.

베트남 생산 원가 낮추고 한정판으로 손실 최소화
‘新’등골 브레이커에 反旗 한달새 추가 최고 40%↑

평창 롱패딩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강조했다.

2010년대 들어 50만~100만 원대 고가 프리미엄 패딩 제품들이 유행하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중고생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패딩 제품에 열광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다. 올해에도 고가의 롱패딩 제품이 유행하면서 (신) 등골 브레이커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파격적인 가격대의 평창 롱패딩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패션업계 판도를 바꿔 놓았다.

평창 롱패딩 신드롬은 고가 프리미엄 패딩 제품의 거품을 빼라는 여론을 조성하며 가성비 높은 제품을 소비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 롱패딩을 제작한 신성통상은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부상하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중학생 딸을 둔 이모(43) 씨는 “평창 롱패딩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고가 패딩 열풍을 잠재울 것 같아 다행스럽다. 앞으로 평창 롱패딩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주당 가격이 800~900원대에 머물며 ‘동전주’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성통상은 주가가 한 달 새 최고 40% 이상 급등하는 등 평창 롱패딩 효과를 톡톡히 봤다.

글·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롱패딩’ 인기 편승...겨울 패션 흥하다



에잇세컨즈 ‘굿럭 패딩’.

식지 않는 ‘평창 롱패딩’ 신드롬

에잇세컨즈 ‘굿럭’·유나이티드 ‘벤치 후드...’

중저가 제품 완판·추가 재생산 모처럼 활기

가성비 앞세우며 울겨울 대체상품 자리매김

50만~60만 원대 아웃도어도 잇따라 가격 내려

패이른 추위로 기온이 영하까지 푹 떨어지는데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이른바 ‘평창 롱패딩’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우수한 제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롱패딩이 올 겨울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롱패딩 열풍에 힘입어 오랜만에 패션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가 제품보다 10만~20만 원대의 패딩이 완판 기록을 세우거나 추가 재생산에 돌입하는 등 중저가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평창 롱패딩 잔여 물량 3000벌 판매를 끝으로 총 물량 3만 벌이 완판되면서 평창 롱패딩 대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롱패딩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백화점을 비롯한 패션·유통 업체들이 울겨울 시즌 롱패딩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11월 15~29일 롱패딩 등 다운웨어를 주로 선보이는 아웃도어 상품군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 스포츠 상품군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대비 43.9%나 늘었다. 롯데백화점 역시 11월 16~27일 아웃도어와 스포츠웨어 상품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43.4% 증가했다.

유통·패션 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며 겨울 패션 대목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가성비를 내세운 패딩제품으로 소비

자를 공략하고 있다. 오수민 삼성패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왔고, 불황 속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성비와 가치소비에 적합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다”며 “또 평창올림픽 이슈와 날씨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롱패딩에 대한 인기가 지난해보다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SPA(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내놓은 ‘굿럭(GOOD LUCK) 패딩’은 라코퍼, 오리털 소재와 퀴팅 디자인에 가격은 13만9000~14만9000원대에 책정해 가성비 우수한 제품으로 입소문 났고, 10월 말 출시 이후 판매 시작 2주 만에 6000장 이상 판매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신장했다. 업체는 본격적인 추위가 오면 판매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전개하는 캐주얼 브랜드 디자인 유나이티드에서 12만9900원에 선보인 ‘벤치 후드 롱패딩’은 출시 보름 만에 1차 재생산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2일부터 9만9900원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량이 더욱 증가했다. 조홍준 디자인 유나이티드 마케팅 담당 과장은 “제품 기획 시기를 앞당겨 판매가를 낮출 수 있었다. 오리털솜 비율이 80%인 롱패딩을 10만 원대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캐주얼 브랜드 홈(HUM)의 롱패딩 제품은 전년(5만 장) 대비 판매량이 2배 이상, 매출은 4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출시한 에어벌퍼 롱패딩은 19만9000원에서 10만 원 할인된 9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가성비 높은 오리털 패딩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추세에 기존의 50만~60만 원의 고가 상품을 선보이던 아웃도어 브랜드도 가격을 낮추고 있다. K2와 아이더는 지난해보다 5만~10만 원 낮춰 제품을 내놨고, 블랙야크는 30만 원대 제품 비중을 35%까지 높였다. 리파의 롱패딩인 사이폰 벤치다운(3만 원)은 현재 7차 리모더에 들어간 상태며, 11월까지 약 7만 장이 판매됐다. 김민정 기자 mj@

‘롱패딩 열풍’ 평창올림픽으로 붐업

평창 롱패딩 광풍의 후폭풍이 거세다. 평창 롱패딩 신드롬은 유통과 패션업계에 롱패딩 제품 열풍을 이끈 것은 물론 식음료 업계의 평창올림픽 마케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라이선스 사업권자로 선정된 롯데백화점이 신성통상과 함께 10월 26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인 평창 롱패딩 3종은 한정판 3만 개가 순식간에 판매됐다.

평창 롱패딩은 구스다운 제품이면서 가격이 시중 거위털 패딩의 절반도 안 되는 14만9000원이지만 보온성과 디자인 등이 뛰어난 최고의 가성비를 보이는데다 평창올림픽의 라이선스와 한정판, 유명 연예인 착용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롱패딩 신드롬을 일으켰다.

롱패딩 인기는 흡수업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J오쇼핑이 20일 진행된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씨이엔(Ce&I)의 롱다운 점퍼는 50분 동안 1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목표 대비 2.7배의 주문 수량이다. 롯데홈쇼핑에서도 푸마의 컴포템프 벤치코트 등 스포츠 브랜드의 롱패딩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롱패딩 열풍은 유아동 패션과 골프 패션업계로도 옮겨가고 있다. 유아동 패션 전문업체 제로투세븐의 5만 원대 알로엔루 오리털 롱점퍼는 인



코카콜라의 평창동계올림픽 한정판 패키지.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강소라의 ‘평창동계올림픽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착용 모습.

기 아이템으로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한세드림의 턱다운 롱패딩 신제품은 출시 두 달 만에 롱패딩 전체 물량의 50%가 판매됐다. 또한 패션그룹형지의 골프웨어 브랜드 까스텔바작이 여성용 롱다운 4종을 출시하는 등 골프패션 업체들도 앞다퉈 롱패딩 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판매전에 돌입했다.

한편 평창 롱패딩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며 식음료 업계의 평창 올

오투기·코카콜라 등 한정 에디션 식음료업계도 올림픽 마케팅 고조

림픽 마케팅까지 이끌고 있다.

평창 올림픽 공식 서포터사인 오투기는 최근 진라면, 오투기 겁밥 등의 올림픽 에디션 제품을 출시했고 코카콜라는 샘물 제품인 강원평창수에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새기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이라는 문구를 새겨 라벨을 붙였다. 파워에이드에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운종(강원도청), 서영우(경기연맹)를 모델로 발탁하며 평창 올림픽 마케팅에 가세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평창 롱패딩 신드롬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음료 업계가 평창 롱패딩 마케팅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평창 올림픽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Romantic Moments Last a Lifetime

Kelly Chen

Cocktail Automatic Collection



어니스트보렐 공식수입원 (주)티보스 1661-5705
공식온라인샵 <http://www.tbossmall.com>
www.ernestborel.ch

[서울] 두타면세점(동대문점) 1833-8800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경기] 사론워치(안양점) 031-463-9788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충청]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1-640-5081 | [제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제주점) 064-780-7669

식지 않는 熱氣 반갑지만... 高價·거품 논란 '제2 헤비다운' 우려

통패딩 열풍 '양날의 검'

업계, 경쟁기업 특수에 제품 앞다퉈 출시
기능성·특수공법 가격 상승 요인 많지만
소비자 '가성비에 울며 겨자먹기식 '다운'
유행 지나면 '할인 大戰' 재고 처리도 부담

패션업계에 통패딩 열풍이 뜨겁다. 일부 제품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은 물론 제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몸이 됐다. 패션업계 역시 이러한 열풍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통패딩 특수가 무조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업계 일각에서는 제2의 헤비다운 열풍이 재현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통패딩 열풍은 패션업계에 '양날의 검'인 셈이다.

4월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무릎 아래까

지 내려오는 통패딩을 출시한 곳이 수십 곳에 달한다. 통패딩 열풍이 뜨겁자 업체마다 관련 제품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골프웨어 등 너나 할 것이 없다. 통패딩 열풍에 경쟁기업은 특수를 누리는데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앞다퉈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수많은 브랜드에서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업계는 경쟁 격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고가·거품 논란이다. 특히 아웃도어 업계의 염려가 크다. 통상 아웃도어 업계에서 겨울 패딩 제품은 한 해 매출의 40%가량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한 벌당 단가가 비싼 겨울 패딩은 업체들에 중요한 품목으로 기업들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마케팅하는 것도 그만큼의 매출을 뽑아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통패딩 열풍의 이면에는 '가성비'가 함께하고 있어 아웃도어 업계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 가격대를 낮추고 있다. 고가 제품 비중을 10% 인위적으로 줄인 반면 중저가 제품 비중은 확 늘린 것. 가능성 소재 적용과 특수 공법, 최상품의 거위털 충전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고 비교를 하

기 때문이다. 가격이나 경쟁 브랜드 난립과 불황으로 수익성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저가 제품 판매만으로는 이익을 꾀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통패딩 열풍에 쏟아낸 제품의 재고 처리 문제다. 수년 전 캐나다구스 등 헤비다운 열풍은 업체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며 지금까지 관련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거품 논란과 업체 간 과열 경쟁에 인기가 급격히 꺾였고 창고에 쌓인 재고는 고스란히 업체의 부담이 됐다. 재고 처리에 고심하던 업체들은 결국 80~90%를 오가는 대규모 할인 대전을 열어 물량을 소진해야 했다. 이러한 할인 대전은 수익성 악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프리미엄 제품을 저가에 내놓음으로써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의 추락까지 가져왔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겨울 시즌 매출을 고려하면 업체마다 통패딩 열풍을 그냥 넘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적절한 가격, 개성 있는 제품으로 어필할 수 없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예비뉴얼 지하 입구 앞에 '평창 통패딩'을 사려는 시민들이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中高生の 또 다른 교복 '통패딩' '등골브레이커'가 돌아왔다?

올겨울 중·고등학생 사이에 통패딩이 유행하면서 일명 '등골브레이커'가 다시 돌아왔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부모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제품을 의미하는 등골브레이커는 2010년대 초반 수십만 원에 이르는 '노스페이스' 점퍼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온 말이다.

학교 주변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패딩을 입은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통패딩의 유행은 빠르게 확산했다. 통패딩 제품은 5만 원 내외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기 제품 가격이 20만~30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 등 비싼 데다 유행에 따른 지나친 과소비 조장이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겨울철 패딩이 있음에도 유행에 민감한 자녀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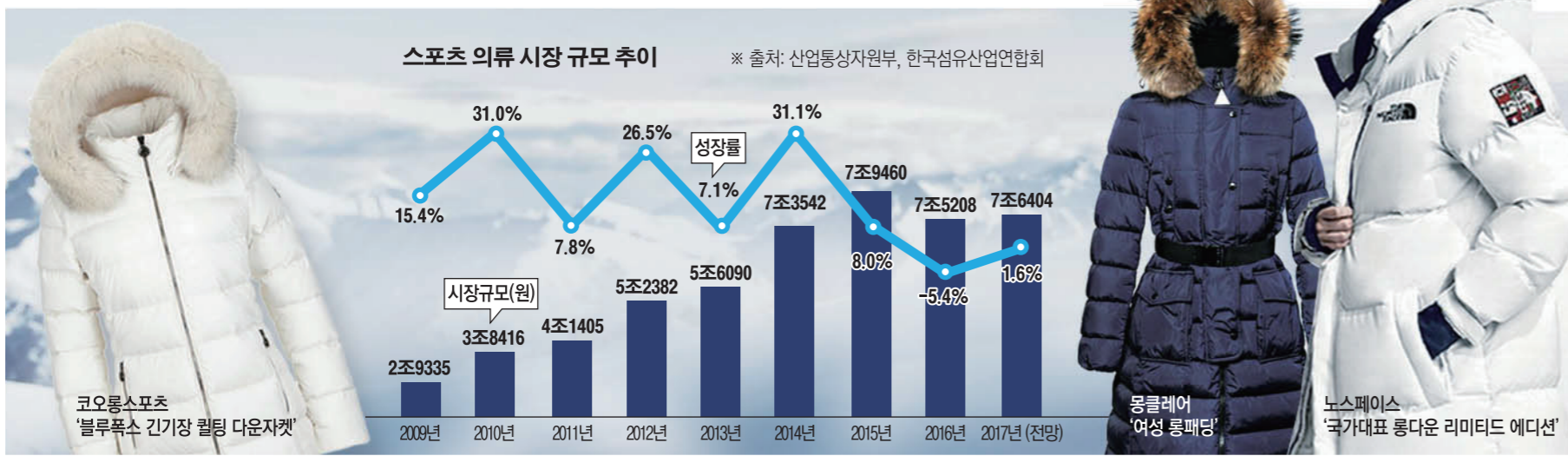
일부 학교에서는 고가 제품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패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학교 주변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패딩을 입은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통패딩의 유행은 빠르게 확산했다. 통패딩 제품은 5만 원 내외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기 제품 가격이 20만~30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 등 비싼 데다 유행에 따른 지나친 과소비 조장이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겨울철 패딩이 있음에도 유행에 민감한 자녀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가 제품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패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학교 주변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패딩을 입은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통패딩의 유행은 빠르게 확산했다. 통패딩 제품은 5만 원 내외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기 제품 가격이 20만~30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 등 비싼 데다 유행에 따른 지나친 과소비 조장이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 인기 있는 통패딩이 유행이 떨어지면 모두 재고로 남는 데 대해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헤비다운 열풍 때에도 재고 처리는 업체들의 몫이었다. 재고 처리로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브랜드들은 인기 연예인을 앞세워 통패딩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난해보다 통패딩 생산 규모를 여러 배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영 기자 kodae0@



"평창 통패딩, 中古사이트에선 30만 원"

한정판 사제 리셀러, 최대 60만 원에 판매
평균 1.5~3배 넘는 가격에 '평창 지킴이' 등장

"평창 통패딩은 가성비가 좋아서 입소문이 났는데, 중고 장터를 보니 14만9000원짜리가 30만 원으로 둔갑했더라고요. 옷돈 주고 사느니 그 값이면 다른 유명 브랜드 사 입겠어요." (30대 여성 이모 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굿즈인 구스 롱다운 점퍼, 이른바 '평창 통패딩'이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폭발적 인기를 끌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옷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한정판이나 인기 제품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리셀

러(Reseller)가 평창 통패딩에서도 나타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4월 국내 최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원래 판매가의 1.5~3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는 리셀러들이 줄을 이으면서 하루에만 100여 건에 달하는 판매 글이 올라왔다. 14만9000원 정가에 판매하는 글은 찾기 힘들다. 평균 5만~10만 원 비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고 구매자를 찾는다. 일부 제품은 6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제시한 경우 댓글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해당 글에는 '구매완료' '판매완료'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면서 리셀러들의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평창 지킴이'까지 등장했다.

한정판 제품의 경우 리셀러를 직접 삼아 고수익을 올

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텐트를 치고 밤샘 노숙을 하고 사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숙 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 제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리셀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패션브랜드 H&M은 발망(Balmain)과 협업한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했고, 판매 첫날부터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정판에 옷돈을 얹어 되팔려는 리셀러들이 대부분이었고 H&M 측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판 받았다.

7월 루이비통이 슈프림과 콜라베이션한 상품은 정가 대비 30배가 넘는 엄청난 리셀 가격으로 논란이 일자 결국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9월에는 유니클로가 영국의 패션 브랜드 JW앤드슨과 협업해 출시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매장(서울 명동점) 개점 2시간 전부터 500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김민정 기자 mj@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에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인공지능·가상현실로 사라포바와 스크린 테니스 대결

첨단기술이 바꾼 여가생활

IT환경이 달라지면서 문화생활에도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 IT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첨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최첨단 IT기술은 이용자들의 여가 생활과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고 있다. 야외에서 즐기던 스포츠를 실내에서 센서를 통해 경험하는가 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운동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여가 생활 속으로 들어온 IT기술과 이를 접목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IT기술이 더해지면서 실내 스포츠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크린골프뿐만 아니라 테니스, 승마, 사격 등 실내에서 하기 어려웠던 종목까지도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뉴턴콘텐츠

레저 테니스·승마·야구...스크린 스포츠의 진화

AI가 코치 역할도...온라인 배틀 가능

야외 스포츠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골프'가 처음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귀족 스포츠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크린 골프가 대중화하면서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골프에 스크린 기술을 접목해 캐디비, 카트비, 장비 구매, 이동 유튜브 등의 부담을 줄여 집 앞에서도 실감나는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골프뿐만 아니라 야구, 테니스, 승마, 사격 등 다양한 스포츠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 공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가상현실(VR)이나 인공지능(AI) 등 IT기술을 통해 해소하면서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다.

스크린야구 '스트라이크존'을 운영하고 있는 뉴턴콘텐츠는 랠리가 가능한 스크린 테니스 시뮬레이터 '테니스팟'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장소나 레슨비 부담 등의 이유로 평소 테니스를 쉽게 즐길 수 없던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테니스팟은 기존 테니스장의 8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현실감 넘치는 테니스 경험을 선사한다. 기존의 스크린 테니스는 랠리를 구현하지 못해 연습용으로만 가능했지만 테니스팟의 경우 스크린 화면 속 가상 상대(인공지능)가 사용자의 레벨이나 난이도에 맞춰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코치 역할까지 구현



인공지능과 실내에서 경기하는 스크린야구. 뉴시스

해 타격 성공률 등의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준다.

실내 스크린 승마 브랜드 '탑홀스'는 승마기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결합해 실내 승마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탑홀스는 실제 말을 탈 때 엉덩이 부분이 위 아래로 움직이며 산소 공급과 신체 순환을 돕는 기능인 '비월장치' 기술을 개발해 실제 말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했다. 또 본인의 취향에 따라 혼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싱글모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한 '온라인 배틀' 등 IT기술을 통해 전 세계 승마인들과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사격도 IT기술을 입고 실내로 들어왔다. 스크린 사격장 '킬링스페이스'는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다. 킬링스페이스는 룸형 소총 3사로를 이용해 즐길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성을 갖췄다. 조성준 기자 tiatio@

극단 고향 제43회 공연
작/ 김태수, 연출/ 신유청, 기획/ 장경민

제작/ 고향故郷
기획/ 극단 시민극장

아내의 서랍

부부학개론

아내가 없는 빈방
문득 아내의 서랍이 궁금해졌다!!
명품배우 주호성, 김순이의 2인극을 통해
사랑과 미움, 믿음과 신념에 관한
중년부부의 감춰진 민낯이 드러난다.

2017.11.22(수) ~ 2018.01.14(일)
평일 20시, 토16시, 일15시
공연문의 : who* 0505-894-0202
명작극장

본 광고를 사진 찍어 오시면 1인 1만 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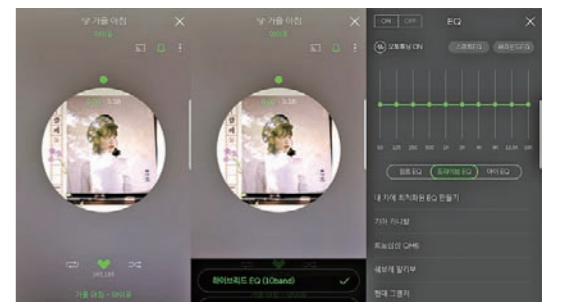
엔터 공연장에 온 듯 원음 스트리밍 서비스

차·스마트폰, 오디오 기업과 협업 늘어

기술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음악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원음 전용 효과를 통해 맞춤 음질을 설정하거나 차량과 기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에 IT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음악과 일상 생활을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 빠르게 접목하고 있다.

뮤직플랫폼 멜론은 고음질 음원 감상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멜론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애플리케이션 4.5.0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하이퀄리티 음장효과인 '하이브리드 EQ(이퀄라이저, 10Band)'를 선보였다. 청음 가능한 주파수를 63Hz-16KHz 대역으로 세분화해 EQ를 10Band로 확장. 섬세한 음질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드라이브서라운드EQ와 오토튜닝 기능을 신설해 공간에 따라 스피커와 감청자 간 거리를 스스로 측정해 최상의 음향을 찾아준다.

음악은 자동차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



최상의 음향을 찾아주는 멜론 하이브리드 EQ.

대차그룹은 출시 중인 15개 차종에 미국 자동차 전자장·오디오 전문 기업 '하만'의 제품을 장착하고 있다. 가이아동차는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렉시온 사운드 시스템' 체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음악과 관련한 IT기술은 가전제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에 이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까지 '뱅앤올룹슨(Bang&Olufsen·B&O)'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G5를 시작으로 최신작 V30까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건강 '티셔츠' 입고 다니면 운동량 측정 끝

'웨어러블' 시계를 넘어 의류·신발 출시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착용하는 IT기기를 뜻한다. 현재까지 출시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팔목에 착용하거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애플워치나 삼성 기어S 시리즈, 사오미 미밴드 등 헬스케어 디바이스 대부분이 손목시계 형태를 띠고 있고, 구글글래스는 안경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좀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입는' 웨어러블 기기도 출시되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패션 언더웨어 전문기업 '좋은사람들'과 함께 심박수나 운동량을 측정하는 전도성 섬유 기반 스포츠웨어 '기어비츠S'의 의류와 디바이스,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핸디소프트가 개발한 레이스메이커는 스마트 스포츠웨어의 센서 통신 모듈 '기어비츠S' 디바이스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류를 입는 것만으로도 심박수 측정, 걷기, 전력질주 달리기 등 3단계의 운동능력을 측정할 뒤 각 사용자의 운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설정, 종목별 분석, 통계, SNS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심박수와 운동량 등 정확한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동 결과를 비



핸디소프트의 웨어러블 티셔츠 '기어비츠S'(왼쪽)와 모바일 앱 '레이스메이커'.

교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어 체력 관리와 업그레이드된 스포츠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다.

웨어러블 기술은 신발에도 적용되고 있다. 솔티드벤처는 스마트 골프화 '아이오밋'을 선보이고 스마트 러닝화 시장에 진출했다. 아이오밋은 IoT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단어다. 아이오밋은 신발의 밑창에 압력과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내장해 무게중심을 측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압력 데이터를 확인하고 골프 스윙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스윙 단계에 따라 양발의 무게 중심과 지지력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데이터와 프로 선수의 데이터를 비교해 학습할 수도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재난 현장에 '드론 수색대'..레이싱대회 新사업 개척

드론에 빠진 이동통신 업계

이동통신 3사가 드론 관련 사업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막강한 통신 네트워크를 앞세워 드론을 각종 산업에 적용,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인명 구조에서 나서다가 하면 '드론레이싱'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2023년까지 전 세계 드론 시장이 13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하루 간격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강원소방본부와 드론·보디캠 등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공공 안전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과 계곡 등 특수지형으로 이뤄진 강원도 특성상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인력이 닿기 어려운 상황에 활용돼 생사와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공공 안전솔루션은 몸에 장착하는 특수단말기(이하 보디캠) 230대와 관제드론 4대, 실시간 영상 관제 시스템 'T 라이브 캐스터'를 결합했다. 보디캠과 관제드론을 통해 소방관의 눈과 발이 되어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 'T 라이브 캐스터'는 강원도 전역에서 LTE 망을 통해 현장 영상을 끊김 없이 송신하도록 도와준다. 강원소방본부는 해당 장비를 특수구조단과 관할 16개 소방서에 배치해 현장에서 보내오는 영상을 기반으로 상황실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7월에는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에서 자사의 초소형 영상 생중계 장비와 드론 전문업체인 숭비의 드론을 결합한 영상재난구조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 양사가 개발한 'LTE 드론'은 산업용 드론에서 활용하는 초고화질(FHD) 영상을 LTE 망을 통해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원격으로 효과적인 인명 구조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도 바로 다음 날인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탑에블루션(LTE) 네트워크 기반으로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과 이를 제어하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공개하고 상용화를 선언했다.

LG유플러스의 드론 관제시스템은 통신 기능을 활용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일반 항공기 관제시스템처럼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군사·산업용 드론은 와이파이 접속



SKT 보디캠·관제드론 활용해 강원소방본부에 ICT 공공 안전솔루션
 LGU+ LTE 네트워크 기반 자율비행 스마트 관제시스템 상용화 선언
 KT 헬륨가스 비행체 스카이십 활용...해상 200km까지 원거리 감시

방식으로 운영돼 조종사와 비행체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비해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스마트드론은 LTE 통신모뎀을 탑재해 인터넷이 연결된 지역이라면 수백km 거리의 원격지 어디서든 통합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운용할 수 있다. 특히 관제시스템에서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 비행속도 등의 계획만 수립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한화테크윈과 드론 물류 배송에 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FC(Future and Converged)부문장은 "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은 드론 산업이 운수나 물류산업, 보안, 측량, 안전점검, 재난감시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집중해 5G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KT도 지난달 드론을 활용한 해상 안전 솔루션을 공개했다. '스카이십'이라는 이름의 이 비행체는 헬륨 가스로 채워져 무인으로 작동되며, 기존 드론보다 비행 거리와 시간이 더 길어 안정적으로 해양 감시를 할 수 있다. 육지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까지 LTE 신호가 전달돼 원거리 해상 감시가 가능해졌다.

KT는 재난용 드론 외에 '드론 레이싱'이라는 스포츠 분야를 개척, 대회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17 KT

5G 드론레이싱 월드 마스터즈'는 국내 최초로 서울 시내 비행금지 구역인 서울광장에서 열린 드론 레이싱 대회였다. 앞서 KT는 8월 해운대 5G 드론레이싱 코리아 마스터즈, 10월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5G 드론레이싱 왕중왕전을 포함해 올해내 세 차례나 드론 대회를 개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1. 지난달 11일 '2017 KT 5G 드론레이싱 월드 마스터즈'에 출전한 선수들이 드론레이싱을 펼쳤다. 2.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망을 통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드론 관제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기로 했다. 3. 지난달 20일 SK텔레콤은 소방헬기가 출동하기 전 관제드론이 화재 범위 및 사고자 파악 등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시연했다. 사진제공 각사

드론 택배

중 정부차원 육성 세계 1위 DJI 이어 화웨이 진출 선언 日도 택배 상용화 국내에서도 시험 중 규제 풀고 있지만 아직도 침침산중 2022년이나 가능

우체국 드론배송 시범운영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8일 드론을 활용해 특량도 마을회관으로 우편물을 시범 배송했다. 사진제공 우정사업본부

국내엔 규제 산적..常用化 '먼 산'

재난 상황과 스포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편물·택배를 배송할 때 드론을 투입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다. 국내에서도 최근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달 시연에 성공했지만, 아직 규제가 산적해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산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1위 기업 'DJI'에 이어 최근 글로벌 IT 업체인 화웨이까지 관련 사업에 뛰어 들었다.

실제로 지난달 화웨이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드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웨이는 앞으로 상공 300m에서도 드론이 대규모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년부터는 글로벌 영공 지역의 30%에 자사 네트워크를 깔겠다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징둥닷컴은 중국 남서부 쓰촨 성에 드론 택배를 위한 전용 공항 150곳을 짓기로 했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2020년 드론 택배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 법 규정 개정에 한창이다.

미국 IT 기업 아마존도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영국 런던 인근 농가

에서 팝콘과 TV 셋톱박스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알리바바와 독일 DHL 등도 드론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선 CJ 대한통운과 롯데택배가 각각 드론 택배 상용화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연구 단계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드론 시범서비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8일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소포와 우편물을 싣고 근저 특량도 마을회관까지 시범 배송을 시연했다.

드론을 띄워 10분 만에 우편물을 배송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에서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드론 운행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실제 우편물을 매일 드론으로 날릴 수 있는 시점은 5년 뒤인 2022년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드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산업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부터 보험만 가입하면 야간 운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공항 반경 9.3km 일대와 사람이 밀집한 서울시 같은 대도시는 여전히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택배 물동량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범으로는 드론 택배 상용화는 꿈같은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17-0370호 (2017.08.24 ~ 2018.08.21)

유안타증권

아들아 펀드에 이어 주식투자도 실패했다가 얘기를 들었다. 유안타가 문대대로 전해오지. 비금세가지.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티레이더 부디 성공투자 하기를 바란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담보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비株’ 한국화장품제조 28%·‘면역진단’ 피씨엘 60% 상승

지난주(11월 27일~12월 1일) 코스피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68.92포인트(-2.71%) 떨어진 2475.41포인트로 마감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시장 전체가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지속했다. 삼성전자의 급락에는 주 초반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장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미국 증시의 IT(정보기술)주와 반도체지수가 급락한 영향이 컸다.

외국인은 한 주간 코스피시장에서 1조5689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비차익거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급락을 국내 증시 전체의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패시브 자금 유출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연기금과 금융투자 등을 중심으로 8194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개인투자자는 329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은화해진 중국 정부… 날개 단 사드보복 피해주 = 지난주 코스피시장의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화장품, 면세점 등 중국 소비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도 중국인의 면세점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한국화장품제

리트의 주가도 중국 프리미엄 교복시장 공략 기대감으로 21.92% 올랐다.

이 밖에 지난주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주식은 에넥스(26.47%), 벽산(20.06%)과 같은 건자재주를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영향이다.

◇삼성전자 급락 쇼크에… IT·반도체株 하락 상위에 = 한편 지난주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디티알오도모티브였다. 동아타이어공업에서 고무사업 부문을 떼어 내고(신설법인 동아타이어) 존속회사에 자동차용 배터리를 사업부문을 남겨 사명을 변경한 곳이다. 이 회사의 주가는 변경상장 첫날인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중 ‘韓 단체관광 일부 허용’ 소식에 관련 종목 投心 상승
한화갤러리아 22%·형지엘리트 22%·에넥스 26% 올라
삼성전자 쇼크… 코리아씨키트 -14%·디아아-12% 하락

조였다. 한국화장품제조의 1일 증가는 5만4000원으로 전 주말(4만2300원)보다 27.66% 올랐다.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기류를 한층 완화해 한국 단체관광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하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중국 국가여유국은 그동안 전면 중단시켰던 한국 단체관광을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일부 허용했다. 3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지 259일 만의 해제를 조치다

최근 다양한 경로에서 한·중 갈등 해빙 기류가 감지되긴 했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관광당국의 공식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의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사드 이슈 이후 면세점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지난 한 주간 21.52% 뛰었고, 교복업체인 형지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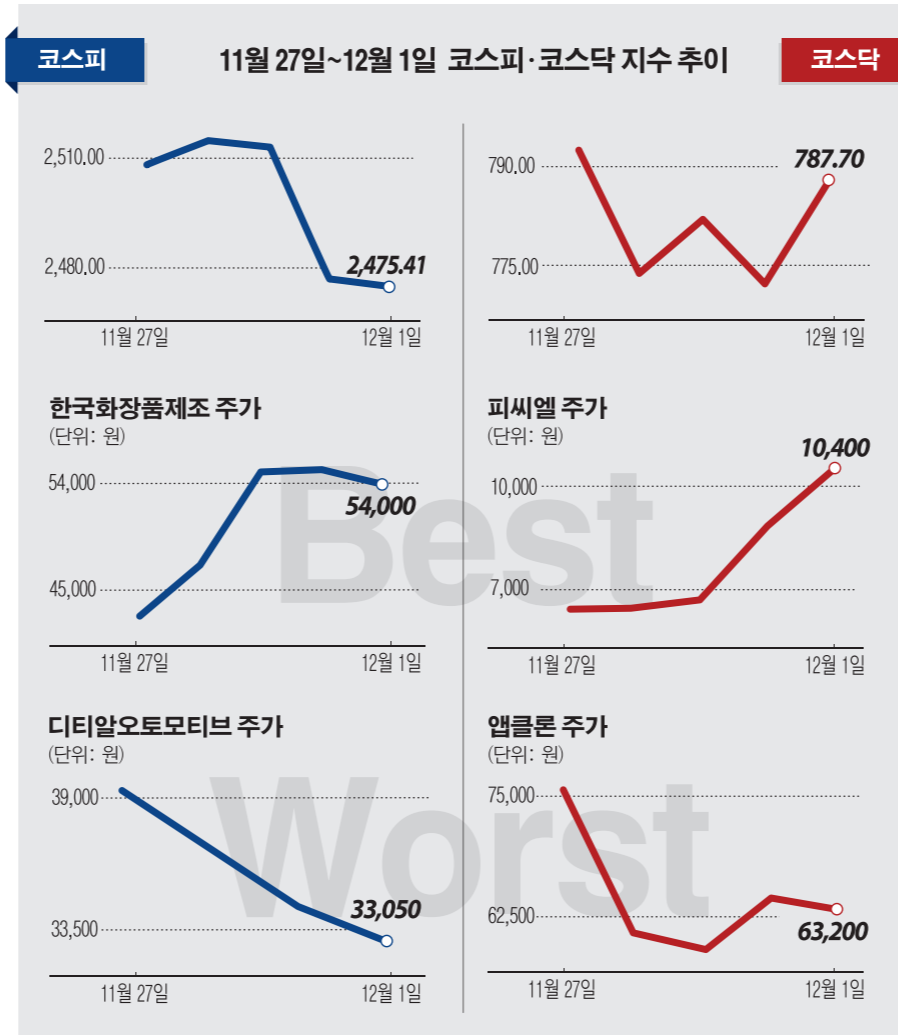
리트의 주가도 중국 프리미엄 교복시장 공략 기대감으로 21.92% 올랐다.

한 주간 16.33% 떨어졌다. 회사 분할과 같은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면, 지난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은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많았다. 코스피가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는 동안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크게 뛰었던 테마다. 그간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해 올랐던 만큼, 삼성전자의 하락세와 미국 기술주 급락에 따른 되돌림이 민감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 인쇄회로기판(PCB)을 공급하는 코리아씨키트가 13.71%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이달 들어 증시의 ‘아이폰X 출시 수혜주’로도 꼽히며 직전 주말까지 주가가 22.36% 상승했었다. 또한 삼성전자에 반도체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디아아가 지난주 11.96% 조정을 겪었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터치패널 생산업체 일진디스플레이의 주가도 10.98% 밀렸다.

베스트 & 워스트 11월 27~12월 1일

코스닥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5.04포인트(0.64%) 떨어진 787.70포인트로 마감했다. ‘형님’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인 탓에 주 초반에는 ‘아우’ 코스닥도 당황해 떨어졌다. 경제 심리가 확산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오른 바이오주의 거품 논란이 점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차근차근 지수를 회복하며 코스피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고, 지난주 마지막 날이었던 1일에는 코스피의 급락세와 대조적으로 2%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일 시가총액	11월24일	12월1일	주가등락률
한국화장품제조	245	42,300	54,000	27.66
에넥스	129	1,700	2,150	26.47
우리금융비재민	53	2,150	2,625	22.09
형지엘리트	105	4,680	5,700	21.92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69	36,950	44,900	21.52
벽산	258	3,140	3,770	20.06
울손화학	568	19,100	22,900	19.90
대림B&Co	123	6,330	7,370	16.43
세원셀론텍	196	2,775	3,225	16.22
금호석유	2,770	78,600	90,900	15.65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일 시가총액	11월24일	12월1일	주가등락률
디티알오도모티브	330	39,500	33,050	-16.33
코리아씨키트	402	19,700	17,000	-13.71
일진다이아	230	23,550	20,350	-13.59
와이베르도	62	4,640	4,080	-12.07
디아아	160	5,770	5,080	-11.96
청호컴넷	29	3,970	3,505	-11.71
동성제약	122	5,560	4,910	-11.69
아비스타	37	3,040	2,685	-11.68
엔케이	107	1,500	1,335	-11.00
일진디스플레이	248	9,840	8,760	-10.98

(시총: 십억 원, 증가: 원)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일 시가총액	11월24일	12월1일	주가등락률
피씨엘	93	6,500	10,400	60.00
에이치엘사이언스	211	27,050	41,000	51.57
인코	214	6,220	8,470	36.17
파나진	261	6,050	8,160	34.88
텔론	843	8,700	11,650	33.91
테고사이언스	366	72,900	96,800	32.78
비덴트	275	10,100	13,000	28.71
차바이오텍	937	14,400	18,450	28.13
제이씨현시스템	168	6,900	8,770	27.10
코아스템	185	9,350	11,800	26.20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일 시가총액	11월24일	12월1일	주가등락률
애플론	430	85,200	63,200	-25.82
넷게임즈	351	3,745	3,050	-18.56
제넥스	633	36,050	29,450	-18.31
이엠코리아	103	3,930	3,215	-18.19
지디	37	2,480	2,060	-16.94
시너지노베이션	132	2,885	2,450	-15.08
에이디테크놀로지	76	10,600	9,030	-14.81
KJ브레이크	43	2,340	2,020	-13.68
DMS	162	8,150	7,060	-13.37
실리콘엑스	825	58,500	50,700	-13.33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 주간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707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투자자는 25억 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주 초반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했지만, 중반 이후에는 매수 우위로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일주일간 47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배아출기세포 연구범위 확대에… 관련주 ‘상승’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는 출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희귀난치질환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는 배아출기세포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기세포 규제완화 기대감·가상화폐 관련 종목 오름세
테고사이언스 33%·차바이오텍 28%·비덴트 29% ‘경중’
‘공매도 이슈’ 애플론 -26%·차익실현’ 넷게임즈 -19% ‘뚝’

코스닥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대표적인 출기세포 관련주인 차바이오텍(28.13%), 테고사이언스(32.78%), 코아스템(26.20%) 등 출기세포 관련주가 다수 이름을 올렸다. 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테고사이언스는 출기세포 유도 방법에 관한 유럽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코아스템 또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출기세포 치료제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의 강세도 눈에 띄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1만1000달러를 넘는 등,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비덴트(28.71%), 제이씨현시스템(27.10%) 등 관련 종목이 크게 뛰었다. 비덴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트코인 코리아닷컴 지분 10.55%를 갖고 있다. 제이씨현시스템은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된다.

한 주간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상승

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면역진단시약 제조업체 피씨엘이다. 지난달 29일 임상 단계였던 다중염진단키트 ‘Ci-5’를 내년 1분기 중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회사의 주가는 한 주간 60%나 상승했다. 이 밖에도 분자진단 특허를 출원한 파나진(34.88%), 관절염치료소재의 인체실험에 성공한 에이치엘사이언스(51.57%) 등 연구개발, 임상 단계에서 두각을 보이던 바이오종목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애플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25.82% 급락 = 한편,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한계선인 전문기업 애플론(-25.82%)이다. 애플론은 올해 9월 18일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가파른 상승세로 돌풍을 일으킨 곳이다. 하락세로 반전하기 직전까지 애플

론의 주가는 8만8000원으로 공모가(1만 원) 대비 무려 9배에 달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주가는 급증한 공매도에 발목을 잡혔다. 바이오 과열을 의식한 공매도 투자자들은 애플론의 하락에 배팅했고, 지난달 28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전후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곳은 게임회사 넷게임즈다. 넷게임즈의 주가는 전주 대비 18.56% 하락했다. 기대를 모았던 신작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를 지난달 28일 출시한 뒤 차익 실현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상 주식 시장에서 게임회사의 주가는 대형 신작 출시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다가 출시와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코스닥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지디가 16.94% 내려앉은 것을 비롯해 제넥스(-18.31%), 이엠코리아(-18.19%) 등이 높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즈·고든 매케른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니?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갈날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엘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김해관 사내비,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작사고를 일깨워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02-3142-0484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에스마크 52주 신저가
공시 반복 이유... 지난주 16% 폭**

방적업체 에스마크의 주가가 하락세다. 최대주주 변경 이슈와 사업 다각화 추진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의 악재도 닦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에스마크 주가는 약 16% 떨어졌다. 전날에는 장중 674원으로 52주 신저가도 기록했다.

에스마크는 니트용, 직물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는 면사, 혼방사, 코마사 등 원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1986년 설립됐다. 전 성호는 거희로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 회사의 하락세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작전세력 개입에 따른 의혹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당시 에스마크에 대해 ‘부자아빠’ 등의 이름으로 ‘메가톤급 재료 발표 예정’이라는 매수 추천 문자가 무차별 발송되며 급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어 에스마크는 최대주주가 유피아이인터네셔널에서 하나금융투자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유피아이인터네셔널은 에스마크 주식 201만 여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3.95%에서 2.32%로 줄었고, 하나금융투자 역시 주식 257만여 주를 팔아치우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8월 들어서는 경영권 ‘지비보스’ 창업투자에 양도하고 다각화를 추진했다. 스웨덴 상장기업 아노토(ANOTO Group AB) 그룹 투자와 인비저블 코딩 원천기술(ADNA) 관련 라이선스 및 협업 계약에 따른 기대감에 사용 동안 17.88% 치솟는 등 반짝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9월에는 중주 신니공장 사업장을 매각해 확보된 자금으로 사업 전환을 시도했지만, 투자심리는 급격히 식었다. 당시 에스마크 측은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액 감소 규모를 72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25.4% 규모다.

최근에는 경영권 양수인에 보스톤성장지원 5호 투자조합이 합류하고, 새로운 대표가 자리에 올랐지만, 추가 회복을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찬물을 뿌렸다. 지난달 29일 거래소는 에스마크의 공시 반복의 이유로 29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사실상 해제가 이유”라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22일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되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남주현 기자 jo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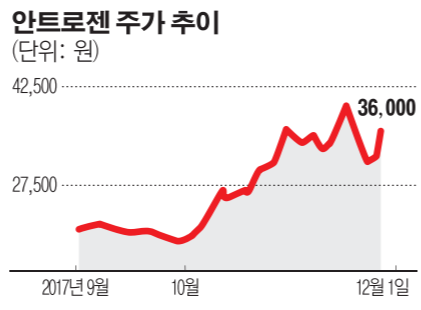
줄기세포 활용 ‘당뇨족부궤양’ 치료제 안트로젠 美 임상 2상 돌입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생산기업 안트로젠이 줄기세포 최초의 척추형 치료제인 ‘당뇨족부궤양’ 치료제(ALLO-ASC-DFU)의 미국 임상 2상에 돌입했다. 이 치료제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트로젠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4일 안트로젠 관계자는 “당뇨족부궤양 치료제는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은 이후 병원 섭외와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임상 2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모집은 44명으로 내년 상반기에 투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치료제는 지난해 11월 FDA로부터 임상 1·2상을 승인받았으며, 한국 임상 2상의 결과를 인정받아 2상을 곧바로 진행하게 됐다. 현재 한국에서도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임상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2019년 임상 3상을 거쳐 2022년 품목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당뇨병 환자가 많은 유럽시장에서의 임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이신제약에 일본 및 대만 판권을 수출했으며, 임상 2상 이후 신약으로 출시될



**2022년 품목허가 이뤄질 듯
시장 진입엔 매출 26조원 예상**

**국내 임상 내년 하반기 완료
日 라이선스 아웃 통해 진행**

예정”이라며 “일본 매출의 40%를 안트로젠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승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보건사회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당뇨환자는 3900만 명으로 집계되며, 당뇨환자 중 25%에서 족부궤양이 발생되고, 매년 당뇨족부궤양 환자 53만8000명이 신규 발생, 당뇨족부궤양 환자 중 6만5000명이 하지절단 수술 시행한다”며 “현재 미국 당뇨족부궤양 환자를 970만 명으로 추정하고 시장 점유율 10% 가정 시 미국 예상 매출 규모는 240억 달러(26조832억 원)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당뇨족부궤양 환자수는 약 67만 3568명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시장점유율 30% 가정 시 예상매출이 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트로젠은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ALLO-ASC-DEB)의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상의 1상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5명 모집 가운데 3명 모집을 완료했다. 일본에서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2b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5~10명 환자모집 가운데 3~5명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국내와 일본에서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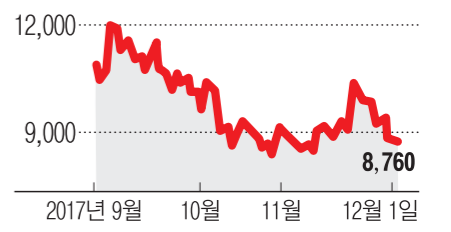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올해 1월 임상 1상을 승인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임상은 라이선스 아웃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트로젠은 생체에 적합한 재료를 활용해 3차원으로 배양함으로써 손상이 거의 없고 건강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3차원 배양 조지공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심재성2도화상(ALLO-ASC-BF, 임상2상), 크론병성누공(ALLO-ASC-CF, 임상2상), 크론병(ALLO-ASC-CD, 임상1상), 만성염증성손상(ALLO-ASC-TI, 임상2상) 등의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일진디스플레이 올해 赤字고리 끊나 ‘갤럭시S8’ 선전 힘입어... 영업이익 220억 전망

측각 센서 ‘포스터치’ 실적 견인

일진디스플레이 주가 추이 (단위: 원)



일진그룹 계열의 사파이어 웨이퍼 및 터치스크린 생산·판매업체 일진디스플레이가 ‘갤럭시S8’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흑자전환에 도전한다.

4일 일진디스플레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9월 말 누적기준 매출액 1907억 원, 영업이익 158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연 매출액 1688억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일진디스플레이는 2015년 전략 거래선의 중저가 스마트폰 재고 정리, 대만 LED 칩 가동률 하락 등의 악재로 실적 하락해 2015년 영업손실 131억 원, 2016년 영업손실 298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영업적자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진입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일진디스플레이는 올해 매출액 2508억 원, 영업이익 2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진디스플레이 실적은 ‘포스터치’가 이끌었다. 포스터치는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의 강도를 인식해서 동작하는 측각 센서 기술이다. 포스터치의 포스(force)는 힘, 터치(touch)는 접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진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터치 입력을 가능케 하는 부품인 포스터치를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태블릿PC에 주로 들어갔고 갤럭시S 모델에는 미비하게 들어갔

지만, 이번 모델에는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일진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신규사업으로 포스터치를 개발, 이 제품이 삼성 갤럭시S8에 탑재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갤럭시S8이 애플 아이폰8의 출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진디스플레이의 갤럭시S8향 매출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갤럭시S8은 꾸준히 하루 약 8000대, 갤럭시노트8는 약 1만3000대가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는 일진디스플레이의 포스터치 성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갑호 교보증권 연구원은 증권리포트 통해 “갤럭시A시리즈도 홈키를 없애면서 포스터치 탑재를 시작했다”며 “삼성전자 포스터치 수요량은 올해 7000만 개, 내년 1억5000만 개, 내년 2억5000만 개로 대폭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면 포스터치 채택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어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GA솔루션즈, 은행聯 블록체인 구축 사업 참여

삼성SDS 통해 서버 보안 강화

통합보안 솔루션기업 SGA솔루션즈는 삼성SDS를 통해 은행연합회가 추진 중인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개 은행이 약 80억 원을 투입해 은행권 공동 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은행연합회와 주 사업자인 삼성SDS가 지난달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를 방지하는 데이터 무결성 등을 보장하지만, 시스템의 안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안 강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SGA솔루션즈는 서버보안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핵심적인 서버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서버 관리 환경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수행 내용으로는 스해킹 방지 기능을 통한 운영체제의 기본 취약점에 대한 공격 방어 스파일 접근 통제 기능을 통해 운영체제 영역 및 임시 디렉토리에 악성코드의 생성 및 실행을 통제, 제3사 사용자 기반의 명령어 통제를 통한 강력한 접근제어 △사용자 행위에 대한 커널계층의 시스템 동작 감시 및 행위 추적 등이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이사는 “비

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자체는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되지만, 실제 거래 시스템이나 계좌 해킹 등 이를 노린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기술이 다양한 산업으로 융합되면서 창출되는 시장을 SGA솔루션즈의 서버 인증, 엔드포인트 보안 및 이를 통합한 다양한 보안기술 중심으로 선제 대응하며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GA솔루션즈는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4차산업 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 주요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12월 4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894,900원	3,900원 (0.4%)▲	비트코인캐시	1,783,000원	128,500원 (7.8%)▲
라이트코인	118,000원	1,350원 (1.2%)▲	모네로	230,400원	500원 (0.2%)▲
이더리움 클래식	34,280원	150원 (0.4%)▲	제트캐시	379,100원	-1,900원 (0.5%)▼
리플	287원	-1원 (0.3%)▼	퀀텀	14,930원	270원 (1.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점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적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SAMSUNG

날씨가 뿌연 날
창문만 꼭 닫으면
초미세먼지는 걱정 없겠지?

초미세먼지는
청소기를 돌릴 때에도
아이가 뛰어 놀 때에도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초미세먼지까지 따로 보는
블루스카이가 필요합니다.

초미세 공기청정기
삼성 블루스카이



AX90N7580WBD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개의 팬으로 넓고 빠른 강력한 청정 | 미세한 입자까지 정밀하게 감지하는 레이저 PM1.0 센서 | 2년에 한 번 필터 교체 필터세이버 *사용 환경에 따라 필터 교체 주기는 다를 수 있음